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儼然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일시_2010. 5. 25(화) 14:00~18:00

장소_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주최_성남문화재단

주관_지역과문화 포럼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지역문화재단이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6년, 문화재단 14년의 역사속에서
문화재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각 지역마다
문화도시 창조의 소임이 점점 더 시대적인 요청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지역문화재단**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본질과 지역문화 창달의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어
대화와 나눔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사회 :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프로그램	
13:40~14:00	안내 및 접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
기조발제	
14:10~14:40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14:40~15:50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방향에 관한 쟁점발표(가나다순) 김경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단]저자 박민호 중구문화재단 대표, 충무아트홀 사장 손경년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기획실장 조경환 부평아트센터 관장 최춘일 경기문화재단 문화협력실장
15:50~16:10	휴식
대화	
16:10~18:00	자유토론자 김석홍 구로문화재단 등 31개 지역문화재단 팀장
18:00~22:00	나눔의 장

< 목 차 >

■ 기 조 발 제

- _문화의 시대, 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1
라 도 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주 제 발 표

- _발제 1.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질문들.....13
김 경 옥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_발제 2.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19
박 민 호 (중구문화재단 대표/충무아트홀 사장)
- _발제 3.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방향에 관한 쟁점.....21
손 경 년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 _발제 4. 익산, 르네상스를 꿈꾸다: 익산문화재단의 출범과 올바른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하여.....31
이 태 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 _발제 5.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하여.....43
조 경 환 (부평아트센터 관장)
- _발제 6. 문제의식의 기초로서 문화예술과 지역, 그리고 제도에 대한 단상: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전망을 위하여.....49
최 춘 일 (경기문화재단 문화협력실장)

■ 부 록

- _부록 1.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 예술행정의 역할분담.....75
오 세 형(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위원)
- _부록 2. 지역문화재단 현황.....85

기조 발제.

문화의 시대, 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

라 도 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유형

01. 지역문화정책에 있어 최근 들어 나타난 변화를 들라면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지역별 ‘문화재단’ 설립일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을 필두로 재단 설립 흐름이 형성되더니 최근엔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다(물론 이 흐름 이전에 <경기문화재단> 등이 있었다). 더불어 그 흐름은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기초지자체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만 해도 중구를 필두로, 구로구와 마포구에 재단이 설립되었고, 최근엔 강남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노원 등에 재단이 설립되고 있다. 가히 문화재단이 ‘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02.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여러 이유로 보인다. 그 중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3가지 유형인 것 같다. 그 첫째는 전형적인 ‘예술(가) 지원형’이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간접적 지원을 행한다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으나 어쨌거나 많은 재단이 이 원칙, 즉 예술가 지원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경기의 <경기문화재단>, 서울의 <서울문화재단>, 인천의 <인천문화재단>, 부산의 <부산문화재단> 등-그 외에도 많다-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이 경우에 속한다. 특이하게 볼 점은 팔길이 원칙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자율적 영역’, 즉 예술가 스스로의 결정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때 그 원칙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한 모델인 위원회 모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예술위원회> 두 곳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자.

03. 두 번째 모델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등장하는 모델인데,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시설관리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금 많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인데,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각각 해당 구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가 있어 각 문화시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볼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이상했던 것은 이 문화재단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35%~50%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물렸지만 그건 아니다. 다소 논의가 옆길로 새겠지만,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1상의 지역문화복지시설이고, 또 실제로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철저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화시설의 유형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시설과 예술생태시설-창작공간, 아카이브 등, 그리고 전문발표시설, 보존 및 전시시설 등으로 나눌 때, 공공서비스 시설은 전문발표시설보다 재정자립도 면에선 자유로와야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은 상업적 발표시설로 운영돼, 뮤지컬 등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전문발표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극장>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상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시설’이 오히려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더 취약해지는 현실, 이것이 지역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문화재단이 잘 생긴 것일까? 아니면 생기지 말아야 할 게 생긴 것일까? 그 문제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04. 마지막 세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은, 정말 흔하지 않지만, 그 스스로 문화부문에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예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예술가와 시민을 엮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개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전의 <부천문화재단>이 시설관리형에서 이런 모습을 띠었던 재단이라 볼 수 있고, 지금의 <성남문화재단> 또한 이런 모습을 자신의 새로운 전형으로 내세우는 듯 보인다. 물론,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한, 광역 지자체의 재단에서도 이런 모습은 일부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형이라고 보기엔 다소 힘들다. 대부분 재단은 그것을 본업으로 하기 보단 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직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말이다.

2. 불만

05. 예전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정리한 논의지만 재단의 설립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팔길이 원칙’, 즉 정부에 의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전문가 혹은 현장 예술인에 의한 ‘간접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하니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보다 전문적인 예술(정책)전문가나 현장 예술인이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재단’이란 민간적 속성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관)은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때문에 민간재단을 설립, 예술지원에 민간의 역량을 조달하고, 공공적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의 기부를 받아 공공의 문화자원을 축적하자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 시절, ‘한옥가꿈이’ 모임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신탁(National Trust)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민간-공공재단에서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설립이유였다. 때문에 <서울문화재단> 설립 조례에는 서울문화재단 역할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민간기부 촉진’ 등과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능력 함양에 있다. 예술영역(정책)은 내가 공무원에게 말하길 3D와 같은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매우 어렵다(difficult). 자기가 완결하는 정책영역이 아닌, 예술가라는 매개영역을 통해 완성되는 정책이다. 그 예술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일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매번 욕을 먹는다. 무식한 공무원이 어떻다고..., 그래서 난 말한다. 매우 더럽다(dirty)라고.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무지 많아 주말에도 나와 매일 일하고 그러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즉 매우 위험한(dangers) 장사라는 것이다. 때문에 각 자치체의 공무원들은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을까를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재단을 설립하는 거다. 오늘날 많은 재단들은 이 전문가 영역의 확보 차원에서-그것이 시설관리든, 예술가 지원이든, 자체 사업발굴이든 간에-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06. 재단설립 근거는 이 세 가지 이유, 즉 팔길이 원칙과 민간기부의 촉진, 그리고 전문능력 함양에 있다. 즉 관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재단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해 보니 전문성도 없고, 말쑥은 말쑥대로 나고, 기부는커녕 있는 돈도 까먹더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재단이 먹고 있는 욕들 중 대부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욕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07. 첫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민원의 발생’, 즉 예술가의 불만과 편견에 대한 것이다. 누차레 말하지만, 가장 많은 재단은 ‘예술가 지원업무’를 떼어왔다. 많은 재단은 예술지원 업무를 그 중심업무로 하고 있고, 정부는 재단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기하고, 현장성을 가하며, ‘팔길이 원칙’을 수행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가 나눠주는 것이나 예술위 혹은 재단이 나눠주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 생각해 보라. 무엇이 다른가? 목표체계가 있었나, 예술현장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이 좋아졌나? 민원이 줄었나? 똑같다. 1973년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된 이래 무려 40년 가깝게 지원해 오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기가막힌 현실은 무엇일까? 팔길이 원칙이 맞는 것일까? 요즘 말처럼, 팔 안에 놓아 언제든 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팔길이 원칙일까?

08. 민간기부에서는 더욱 더 할 말을 잃는다. 원래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이었다. 그것을 기금이라 한 이유는 거기에 다양한 기부를 받아 그에서 형성된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이것은 분명 선행주자의 잘못이다-으로 그 기금마저 ‘기본재산’으로 처분해 버리고, 한 푼 기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스스로 민간과의 만남을 개척해 내지 못한 문화재단! 내가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불과 몇 십억의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몇 천억을 박아두어야 하는 현실-그 당시에는 금리가 무척 낮았다-에서 주장했던 것은 민간과의 협력과 지원 내용의 다양화였다. 즉 민간과 협력해서 다양한 기업이 예술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의 내용에 있어 경제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 즉 공간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홍보마케팅, 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작년, 2009년이다. 2009년 처음으로 <예술지원박람회>라는 것을 했고, 그 때 그 열기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재단이 설립되고, 제안이 이루어진 지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민간과의 협력! 때문에 이 또한 공무원들의 기대와는 먼 것이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로소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을 뿐이다.

09. 마지막으로 재단에 거는 기대는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을 뽑아 놓았으니, 공무원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는 예술지원에서도 그랬고,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시행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나은 게 없었다.

솔직히 말해 재단이 하는 것과 공무원이 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모든 조직은 ‘나이’를 필요로 한다고, 아무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와 봐야 그 조직 또한 나이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내에선 ‘난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도,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일하긴 어렵다.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고, 소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갖춰질 때 쯤이면, 조직 내에서 묘한 분위기, 즉 ‘관료화’의 냄새가 솔솔 피어 오른다. 공무원보다 더 보수적이 되어가고, 도전이 줄어드는 재단의 분위기! 그것은 통제를 행하는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점차 시스템화되어 가고, 조직의 위계를 갖추나가면서 조직이 스스로 ‘포섭’하는 전문적 역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몸을 사리며, 조직의 위계체계로 움직이는 문화재단! 그로인해 공무원들은 재단이 공무원보다 더 한다고 얘기한다.

3. 방안

10. 재단이 운영하는 많은 토론회에 가봤다. 여러 발표도 했고, 토론도 했지만, 그 때마다 내가 강조한 것은 그 스스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11. 많은 사람들은 말할지 모른다. 재단의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 예산독립은 결코 재단독립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현재의 재단이나 위원회가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그렇다. 그것이 무엇이든, 완전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한, 재단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재원을 제공한 정부로선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에 관한 기술에 대해선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때문에 아마 귀찮을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더구나 재단과는 성격이 상이한 기관과 그 우열을 가리는 성과평가를 감행하기도 한다.

12. 때문에 재원을 통한 재단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부담은 너무나 크다. 예컨대 현재의 이자율-대출-을 기준으로 100억 원의 재원을 만들고자 하면, 무려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연 100억 원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 2,000억 원을 사용해야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 법의 구조에 의해 ‘문

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되고, 그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형적인 구조는 아마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논의구조는 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현실적 방식 중 하나다. 그건 다만 재단에서 가장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논의에 불과하다.

13. 보다 정확히 재단이 독립을 위해서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예술지원형 재단’도 ‘시설관리형 재단’도 마찬가지다. ‘예술지원형 모델’은 이미 지적했기에 ‘시설관리형 재단’의 경우로 한정해 얘기해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대규모 재원을 만들어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을 상업적 콘텐츠를 위해 운영해야 하다니.

그러나 만약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낮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분명 시민들은 다른 이유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전문가를 뽑아 시설운동을 맡겼는데,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고, 예산을 들여야 하다니! ‘차라리 그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도 줄여라’라는 식의 비판, 왜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재정자립도를 크게 하면, 지역민이 소외되고, 재정자립도를 낮게 하면, 우리가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재단은 ‘예술지원형’이건 ‘시설관리형’이건 독립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재단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14. 알다시피 오늘날에 있어 예술지원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지금까지 예술지원 정책이 잘못된 현실을 파악하고, 그 지원의 방식을 바꾸는 한편, 지원 정책의 틀을 바꾸고 있다. 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첫째, 경제적 지원을 점차 축소하되 환경적이고 환경적인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현재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즉, 창작공간 건립을 통한 지원이나 클러스터 형성 등 보다 네트워크화된 시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예술지원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재적 변화라 볼 수 있다.

16. 두 번째 방식은 정책의 목적이 예술가 중심에서 국민과 지역, 생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 지원방식은 엄밀히 말해 예술가 구호방식의 지

원이었다. 예술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나눠먹기식의 소액지원을 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성과는 거의 없었다. 예술의 현장은 바뀐 게 없었고, 예술가의 형편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나온 변화는 이 예술가 구호형에서 벗어나 국민과 지역, 생활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다. 생활공동체 형성이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연 예술상주단체 지원사업 등 각 사업은 예술을 지역과 생활 속으로 파고들게 만든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일회적 이벤트였고, ‘아트 인 시티’와 같은 공공예술프로그램이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는 시도였다면, 최근의 사업은 예술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들이다. 그 연결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하는 한편, 그 결과가 국민과 지역 속에 순화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자 동향이다.

17. 세 번째 변화는 단지 구호형 사업이 아닌 ‘목적(표)지향형’ 사업으로 정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목표지향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단순한 구호형 사업이었던 ‘공모사업’은 지방으로 넘겼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진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자. 하지만 어쨌거나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나아가는 방향-지표는 정확히 보여준다. 지방 또한 공모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말이다.

18. 요약해 보자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점차 ‘예술가보다는 국민을 지향하고, 목표지향적으로 단순지원보다는 성과를 지향하며, 경제적 지원 외 다양한 지원을 혼합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방정부의 지원, 재단의 지원사업 또한 그와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그냥 무턱대고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또 그것이 무엇이든 상업적인 콘텐츠를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그 스스로 목표를 지향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즉 문화재단 또한 목표와 성과, 국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문화재단은 하나의 거칠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은 하지 않았는데, 행동은 사업가처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화재단의 앞에 놓인 험난한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제언

19. 시대는 정말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과 공익적 차원에서 존

재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기표가 기의를 상실하고 떠도는 오늘날에 있었선 그 스스로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어떤 것도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 스스로 존재를 설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20. 정부부문은 더 힘들다. 그 어느 나라보다 거친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부문에 애초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갇은 수단으로 감시하고 험한 말길을 날리며, 그들이 쓸모없음을, 평소 억눌려 산만큼의 감정을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쏟아낸다.

시어머니가 미우면 시누이는 얼마나 더 미우랴! 공사 등을 향해 날리는 조소는 더 심하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등 오늘날 공사들이 받는 조롱은 얼마나 심각한가?

21. 문화재단은 그 조롱을 안 받는다고? 문화재단은 엄밀히 말해 그다지 관심 대상은 아니다. 문화적인 일, 고급의 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단에 대한 인상도 달라질 것이다. 조직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낮기에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성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22.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오늘날 재단이 처한 현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다.

23. 재단이 정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난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주민과 시민을 위해 다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문화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구체적인 현장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그 현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질수록 정책은 빛이 난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은 가장 구체적인 현장-지역-속에서 예술과 지역을 결합시키고, 그 힘으로 생활을 변화시키며, 지역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한다.

24. 그런 점에서 우선해야 할 일은 지역 속에 예술을 매개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 지역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며, 그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예술지원형 모델도, 시설관리형 모델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설관리형 재단이 자신의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역민을 대폭 할인해주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민의 삶의 현장, 지역 속에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시 자치구 평가사업을 갔을 때 내가 물었던 질문은, “당신의 자치구 구민들을 위해 문화재단까지 설립한 당신의 시설에서 지역민을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그 대부분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어떤 시설에서도 그 유명한 뮤지컬 작품을 할인해 주는 행사는 없었고, 갈라쇼 등을 통해 지역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교육프로그램이 자신의 시설이 아닌, 지역민 속에 나가는 것도 없었다. 오로지 시설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시설로 오는 사람만 상대하는 재단! 과연 그 안주 속에 감동을 선사하는 재단은 있을까?

25. 많은 사람들은 항변한다. 재단이 왜 다른 기관들과 끼어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하냐고. 그 기관들이야 시민의 이해가 걸려 있어 인지도가 좋지만 우리는 좋지 않다고! 정말 그럴까? 단적인 예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화재단이야말로 다른 기관들과 달리 ‘선행’의 이미지로 주민과 시민 사이에 인지도가 높을 수가 있다. 다른 기관이야 심판자 입장에서 규제도 하고, 하기 싫은 짓도 해야 하지만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다. 그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갖고, 민간의 재원-역량-을 끌어들이며, 예술가를 잘 조직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이야말로 스스로 변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고, 문화재단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문화재단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예술지원에, 시설관리에 주어진 일을 주로 하며, 현실에 안주한 것은 아닐까?

26. 나는 오늘날 문화재단이 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부분은 바로 주어진 일, 관성의 법칙에 의존해 가는 것이었으리라. 그 관성의 법칙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국민의 이해나 행복도 없고, 우리나라 예술지원 정책이 나가는 길도 없고, 더구나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다. 그냥 문예진흥기금처럼, 설치한 목적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그런 길만 있을 뿐이다.

27. 우리가 깊게 반성해야 할 것은 아무런 목적없이 반복되는 관성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서 난 예술위원회에서 각 지방에 공모사업을 내려보낸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명 그 행동이 있기에 앞서 예술위는 우리나라 예술지원

행정 및 방향에 있어 커다란 지침과 방향을 주고, 각 재단이 해야 할 행동들의 양식을 권고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주어졌다. 어쩌면 이 결과로 각 재단이 해야 할 일-지원금 나눠주기-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재단이 가져야 할 창의성과 그 스스로 독립해야 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한다.

27. 예술지원 사업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일이다. 각 지방재단은 그 지원된 힘으로 성숙된 예술가들을 활용, 구체적인 지역과 시민생활 내에 예술의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때문에 공모사업을 내려보내고 예술위는 목표지향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엄밀히 말해 예술위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공모사업’을 없애고, 성과위주·육성위주로 예술지원사업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로에서 각 지방재단과 협력, 예술을 생활과 지역, 삶 속에 투입하는 일을 기획했어야 했다. 그런데 예술위는 가장 편한 길을 택했다. 그 결과 일은 가장 편해졌다. 그전에 하던 일을 하면 된다. 더구나 예술위 지원으로 일은 더 늘어났다. 그 결과 문제의식은 약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것일까?

28. 거듭 말하지만, 문화재단이 인정을 받는 것은 ‘지역민’을 통해서다. 정부부문의 어떤 일을 맡아도 문화재단은 절대 독립할 수 없다. 예컨대 문예지원사업을 통해서 일할 경우, 정부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나 재단이 하는 일이나 다를 게 뭐냐고 묻는다. 사실 따지고 봐도 다를 게 없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같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하면 정부가 한 일이지만, 못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그건 재단이 한 일이다. 재단은 그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재단이 스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부가 아닌 지역민’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예술을 생활 속에 끌고 와 그 스스로 성과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29. 지금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예술을 무척 존중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동아리 활동을 즐기며 그 스스로 예술을 행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다. 서울 또한 각 자치구별로 그야말로 실버악단 없는 동네가 없다. 지금은 앞서가는 동네에선 지역극단이나 주민악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활동 중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은 자기개발이든 예체능의 가능성을 엿보는 차원에서든 다양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많은 예술교육을 시킨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나라 수

많은 시민들은 클래식을 즐기며, 해외 여행가면 박물관과 미술관부터 달려간다. 인구 5천만에 13백만의 관람객이 나오며, 1천만의 인구에 7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나오는 미술전시회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10%의 문화관람 비율! 어쩌면 이것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공급자의 문제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소득수준과 다양한 (해외)경험수준에 응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콘텐츠, 지속적인 관객개발의 노력,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포섭하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만들어 낸 결과다. 어찌 이것이 우리 국민의 문제라고 지적하겠는가?

30. 문화재단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 스스로의 지역 속에 파고들어가 지역을 바꾸고 시민생활을 바꾸며, 설립한 바 이유대로 전문성을 갖고 민간과의 협력을 끌어내고, 다양한 자원-이는 재단 재원이 아닌 예술활동, 문화활동의 재원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연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재단은 아마 그 존재를 계속해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31. 무관심은 때론 어떠한 행위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행정의 일은 조직을 늘리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 나타난 뚜렷한 흐름은 ‘통합과 폐지’다. 각 기관들을 통합하고, 필요치 않은 기관들은 없애는 것! 각 지자체마다 선심행정(?)을 너무나 추진한 나머지, 기관과 시설은 대폭 늘었고, 경영능력은 매우 취약해 졌다. 이 통폐합의 흐름! 이것이 강화된다면, 또 어떤 흐름을 탄다면, 재단을 향해 목을 죄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일을, 그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스스로 어느 누가와도, 그것이 자신의 설명으로가 아닌 시민의 지지와 설명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날 재단이 나가야 할 길일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주제 발표 1.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질문들

김 경 옥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 대전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정책의 분권화(민영화), 전문화, 다양화를 반영하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앞다투어 지자체들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함은 이미 설립된 재단들이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질문들

○ 지역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더 잘 (전문적, 현장 밀착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는가?

⇒ 시민들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요구했는가? 혹은 지자체에서 적당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었는가?

⇒ 지자체 단체장들의 입지강화(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 혹은 지자체 업무의 민간위탁차원의 행정편의 목적으로 설립됨

(태생적 한계)

지자체 담당과장 및 팀장이 승진에 재단의 존재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재단의 업무성과 가로채기 성행)

⇒ 지역민이 사업주체가 아닌 대상화됨.

○ 지역문화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의 의미는?

⇒ There is no money without strings!(지자체가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하고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의 감시 및 감독체제 하에 놓이게 됨)

⇒ 기업의 후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음.

예) 교보문고

■ 매일신문(2010.5.12)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사설

대구문화재단이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 그동안의 기부금은 대구은행 1억원과 개인과 단체 2곳의 1천만원 등 1억 1천만원 뿐이다.

문제는 대구문화재단이 기금확충 노력은 뒷전이고 자체 행사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사업인 지역문화지원사업도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지 재단의 입맛대로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이하 생략)

⇒ 위 사설에서 지역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

▶ 지원사업보다 민간재원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함.

▶ 재단은 지자체의 종속기관이며 지자체의 방침에 충실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역할만을 해야 함.

⇒ 민간재원 확충 노력에 대한 강조는 재단의 부가적 역할이나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재단의 재원조성 역할을 정치적으로 활용 (재단 CEO는 자신의 다음 단계의 입지를 위한 네트워킹의 수단으로 재원조성 사업비 활용).

예) 각종 고위000과정 교육 프로그램, 기업 후원의 밤 행사

⇒ 공공성과 수익성의 추구는 결국 두 마리 토끼에 해당함.

○ 지자체 문화관련 부처의 행동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자체가 공공에서 풀기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반관반민의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예) 청탁성 지원, 서울광장의 사용허가 건

○ 재단의 리더쉽 독립성은 가능한가?

⇒ 지자체 단체장이 재단이사장 겸직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집행부와 재단을 연결하는 역할, 힘있는 이사장

▶ 단점: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권을 자치단체장이 갖는 모양새

재단을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간주

⇒ 겸직이 아닌 경우에도 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명권한을 지자체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수렴청정식 운영이 가능함

⇒ 재단 CEO 임용 시 지자체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 혹은 전문성 중 어느 요소가 중시되었는가?

○ 전시행정은 지자체 소관부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자체 고위직 초과 유희 인력의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의 파견 및 유사한 행정시스템 적용

⇒ 재단 CEO가 연임을 하거나 퇴임 후 재단을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에 대한 집착이 생기며 재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여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간관리자층이 생기게 됨.

⇒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재단의 독자사업 정책개발을 위한 여력 소진 (문화시설관리공단화 되는 경우도 있음).

⇒ 궁극적으로 가치적(정치적) 독립성 없이는 전문성 구현이 어려움.

○ 재단업무에서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 정책개발을 재단의 주기능으로 보는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이 있으나 현실은 재단은 정책의 생산기관이라기보다 집행기관의 위상에 가까움.

⇒ 재단직원은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문화예술 현장과 가깝게 일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직원이 갖는 전문성으로 현장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함.

○ 공공의 재원이 아닌 사재인 경우라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재원을 투입하겠는가?

⇒ 두가지 입장

- ▶ 전문가 혹은 재단내부에 의해 작성된 결과평가보고서를 시민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 얼마나 동감하겠는가?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시행)
- ▶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가시적, 장기적 성과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움

○ 예술단체는 문화재단을 새로운 문화권력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 ⇒ 각종 심사기준 작성, 심사위원, 자문위원 등 각종 전문가 참여에 영향을 행사함
- ⇒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인 재단직원이 나올 수도 있음.
- ⇒ 예술단체의 행정직원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이 높은 위치가 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 ⇒ 문화분야 독과점비영리기관화를 경계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만든 재단에 대한 평가지표 및 감사 등은 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 정량적(계량적) 경영평가에 대한 각종 대응 방식 개발
(심사위원과 관계유지, 수치적 목표 낮게 잡기, 지나치게 잦은 만족도 평가 등)
- ⇒ 정성적, 장기적 효과에 대한 관심의 약화 및 바람직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 결여

■ 공공문화예술기관 인력의 전문화 방안-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정책실행의 주체가 전환된 제도적 변화가 가져온 문화정책의 내용적 진전을 정부 운영논리를 적용하여 감사로 되돌리고 있는 사태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중략)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재상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규정에 가장 잘 맞추어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가로 족할 뿐, 더 이상의 역량전문화의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2010.5. 11 예술정책 세미나에 실린 서울문화재단 직원의 글)

- ⇒ 민간조직에 대해 공무원 조직과 같은 기준적용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조직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내부적 각종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재단 설립의 연한이 오래될수록 고질화되어 있음.

⇒ 오히려 실제로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재단의 경우, 지자체 감사에 지적받을 확률은 높음(지자체의 힘있는 부서의 경우, 감사결과에도 일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

○ 친예술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이행에 대해 객관적 feedback이 가능한가?

⇒ 착시(마취)효과, 방어적(공격적) 대응

※ 지역문화재단은 광역/기초의 성격에 따라 나뉘기도 하며 지역적 여건의 편차(자본금의 확보, 조직구성의 측면, 지자체와 관계 설정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심하므로 전체 재단을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제기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향후 지역문화재단 수 및 재단 사업비 규모 증가, 조직의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방안, 정보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인과의 네트워킹, 지자체 유관부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관계정립의 측면에서 상호 정보교환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들간의 협력모임은 반드시 필요함.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주제 발표 2.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 - 중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박 민 호(중구문화재단 대표/충무아트홀 사장)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충북과 전북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제 거의 모든 광역시에 문화재단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의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수성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화재단의 전국적인 열풍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올바른 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지역문화재단이 변화하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지역의 문화환경 속에서 지역문화를 매개하고 창조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4년 12월에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서울 중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중구문화재단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먼저 중구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충무아트홀이란 문화예술공간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복지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사업내용은 첫째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둘째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 활동과 그 보급, 셋째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넷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다섯째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다. 중구문화재단의 사명은 지역사회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복지 증대로 요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충무아트홀 운영과 공연예술진흥 그리고 구청장의 위탁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근거해 중구문화재단은 충무아트홀의 운영을 통해 중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개관 이후 줄곧 노력해왔다. 충무아트홀은 중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굿모닝

콘서트와 열린 음악회, 가족공연, 악극시리즈 등 계층별 맞춤공연을 펼쳐왔으며, ‘동화와 놀이’ ‘반쪽이의 고물 자연사박물관’ 등 특색있는 대형 전시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충무아트홀은 공공공연장으로는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전략을 내세워 개관 이후 대형뮤지컬을 잇따라 선보이며 뮤지컬 중심의 서울시 4대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구문화재단은 충무아트홀이란 공연장을 통해 중구민의 문화복지를 크게 향상시켜왔으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계가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일구어왔다. 특히 충무아트홀의 대극장을 비롯한 중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각종 연습실은 저렴한 대관료와 완벽한 무대시스템,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어려운 뮤지컬 제작사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중구문화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가며 한국 뮤지컬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며 중구민을 위한 생산적 문화복지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구문화재단이 개관 5년을 지나며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채용해 이들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과 함께 사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30~40억원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던 것이 발판이 되었다.. 또한 중구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중구문화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각 문화재단은 출연관청과 의회의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확보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출연관청과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 벌이는 개별 사업의 의미와 비전 등을 출연관청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알려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즘처럼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출연관청과 의회는 문화재단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의 가치와 예술의 의미를 설파함은 물론 문화예술의 현실적인 구조를 설명해야 한다.

중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생산적인 문화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구민들이 문화를 일상에서 즐기고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무아트홀의 대형 뮤지컬을 구민이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티켓나누기나 사랑티켓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충무아트홀을 찾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의 요람으로 가꿔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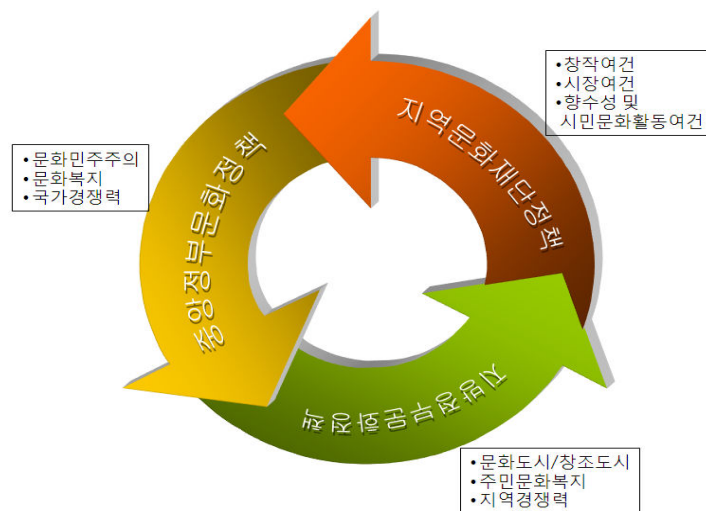
주제 발표 3.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방향에 관한 쟁점

손 경 년(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 국가문화정책기조와 지역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관계 이해

국가의 문화정책기조는 지역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들 각각은 독자적인 역할을 갖고 있으며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국의 문화지형을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보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지역문화활성화>가 현 정부에서 여전히 표면적인 구호로 드러나긴 하나, 실천의 영역에서 보면 세종시 이전문제에서 드러나듯, 이전 정권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개념, 하위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폐기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또한 협치(governance)의 기본원칙으로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 분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실용’에 대한 개념이나 해석범위가 매우 주관적이어서 정책실행 시 관련 기관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소지도 안고 있다.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문화재단과의 관계도>

다른 한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배분 정도를 살펴보면, ‘예술창작자’를 우선하는지 혹은 ‘향유자’를 우선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를 중시하는지 또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실행프로그램이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목표체계에 따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이는 지자체의 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재단의 프로그램 방향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들에게 가까운 미래 혹은 장기적 지향점에 있어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현재 문화의 지형,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 어떻게 투영되면서 정책으로서 기능 하는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다면, 역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가능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운영과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쓸 만한 해법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핵심 가치(이념)	정책방향 및 특징
제3공화국	주체성	민족문화의 창달
제4공화국	주체성	자주적 민족문화창달, 민족주체성 확립 영화 및 출판 진흥 등 대중문화 초점
제5공화국	문화적민주주의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진흥
제6공화국	문화복지와 참여	국제문화교류의 양적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문 재정확충 생활문화 정책
문민정부	자율성, 다양성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 강조 자율성과 다양성의 토대 위에 창작품토 조성
국민정부	형평성, 경제성	삶의 질 향상이란 개념 도입 문화산업 육성 강조
참여정부	참여, 자율, 분권	문화행정 개혁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화 및 민간자율체계화 추진
실용정부	문화시장화 문화시민권보장 예술의 자율성	문화예술완성도와 가치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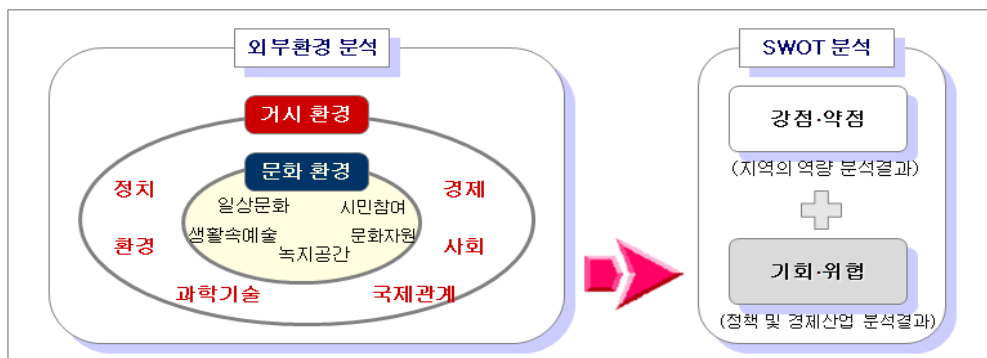
<정부의 이념에 따른 정책방향 및 특징에 있어서의 차이점>

■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정책의 미션 이해

그동안 문화관련 전문가들은 지역문화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라고 정의해왔다. 문화라는 보편성이 한 축을 이루고 <지역>문화라는 특수성이 다른 한 축을 이루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문화가 형성되는 것

이다. 이 때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하자면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함’을 뜻하는 것으로 달리 말하자면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있어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정립의 출발점은 ‘지역문화정책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은 소위 <지역성>이 <지역 이기주의>와 혼재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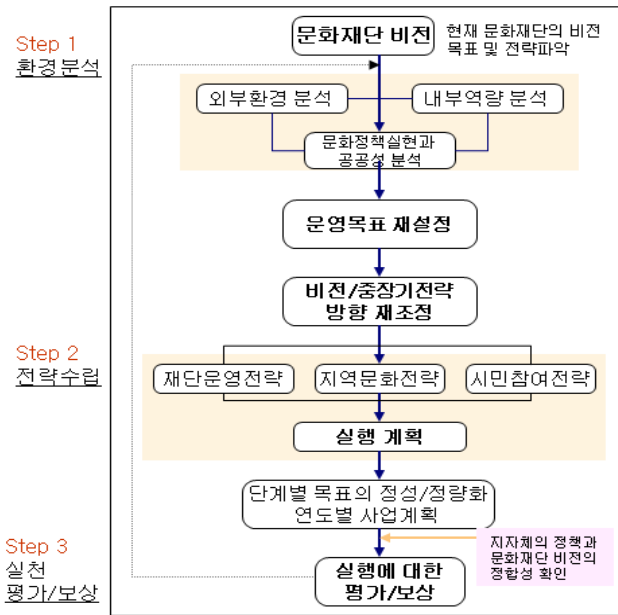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이래 지금까지의 지역문화정책을 보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역량’과 ‘문화민주주의’ 등의 정책지향과 맞물려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예술향수의 양적수준이 분명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설의 물량공급이 내용을 담보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화공간의 주체에 대한 문제 및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인력충원의 미비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문화시설인프라의 양적팽창이 어느 수준까지 있어야 질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인프라의 수에 초점을 두었지 시설의 질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문예회관’인 경우가 허다하다. 변화하는 문화지형 속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공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새로운 미래지향적 형태의 문화시설인프라의 증가 및 이에 대한 시설관리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따라 SWOT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분석을 통해 얻은 지역의 강점/약점, 기회요인/위협요인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비전설립을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역은 주민들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삶의 구체적인 터전이다. 일상생활을 통해 지역주민의 감정, 정서, 경험이 축적되고, 생산과 소비, 구상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지역은 물질적 자원과 시설물들이 자리하고 있고, 자연경관, 물과 공기, 식량 등을 제공하는

곳이며, 사회적 가치의 원천인 곳이다. 따라서 <장소의 질>은 <삶의 질>과 함께 지역의 문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역의 매력도 증진, 건강성 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정책은 어떤 전략 및 대상을 설정해야 하는가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적 실천과정에 대한 단계별 흐름도>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를 보면, 웰빙, 영성, 생태, 환경, 공동체, 협동, 연대, 네트워크 등 디지털 시대의 속도전에 반기를 드는 아날로그식 향수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에도 반영이 되는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느린 휴식을 위한 ‘1000개의 의자’ 만들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증도의 ‘무공해 천연세제’ 사용으로 합성세제를 추방한 ‘무공해 섬’ 실천, 스웨덴 플레타곤 프로젝트나 캐나다 밴쿠버의 ‘아이즈 하이라이즈(Eyes Highrise) 온실’ 프로젝트 등 도시 중심가의 빌딩 사이 틈을 이용한 ‘수직형 정원(Vertical garden)’ 계획 등이 그것이다.) 지역문화의 비전과 지역문화재단의 비전이 서로 상충되거나 분절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성장의 궤도를 정확히 읽은 뒤 맵핑하면서 정책 비전과 목적 설정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타벤 하겐의 문화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자산	문화를 일종의 자산(resource)으로 보는 관점 문화는 인류가 축적해온 물질적 유산	문화발전을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발전과 보완적으로 이해
창조성	문화를 예술적, 과학적 창조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 문화를 '창조하고' '해석하고' '실연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 있음. 문화적 권리는 개인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할 권리, 모든 사람이 박물관, 콘서트, 극장, 도서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함.	문화정책은 문화창조자에 대한 지원과 창조자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것에 집중
생활양식	문화는 일관된 가치체계, 일련의 실천과 상징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방식, 즉 생활양식(way of life)을 의미함. 문화적 권리는 집단적 권리 즉, 집단적 정체성을 억압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의미함.	문화와 공동체와 밀접

<Stavnhagen의 '문화를 보는 관점'(1998)>

■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적 역할 이해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민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9개의 광역문화재단(경기, 강원, 제주, 광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과 24개의 기초문화재단(강릉, 부천, 고양, 성남, 거제, 서울 중구, 인천 부평, 전주, 창원, 하남 의정부, 화성, 안양, 안산, 수원, 아산, 서울 구로, 서울 강남, 서울 마포, 춘천, 청주, 인제)이 설립되었다. 대개의 문화재단들은 96년도에 최초로 설립한 광역단위의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단위의 부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으로부터 약간씩 빛을 지고 있으며, 문화지형의 변동에 따라 재단들은 새로움과 지역고유의 특성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찾아나가고 있다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보존·연구사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문화시설 수탁 운영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반을 둔 출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운영의 전문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재단은 과거 지방정부가 담당했던 문화영역의 기능과 역할의 일정부분을 이관 받아 공적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민관협치모델의 하나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듯하다. 혹자는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에 일정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 혹은 행정 관료 중심의 문화정책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 문화의 ‘공익성’의 달성하고자 하는 명분과 한정된 재원의 최대 효과를 늘 추구하면서 일정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요구하는 예산체계는 ‘문화예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또 ‘공익성’의 추구를 ‘빙자’하여 정치적 효과와 인맥 등과 연관된 이벤트나 특성 없는 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재단’을 만들어주었으니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다그치는 시군구 의원들의 요구도 만만찮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계속됨에 따라 완전하지는 않으나 재정운용권 및 재정 집행력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이 커질수록 갈등의 요소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상과 그 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면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과 지역경제와의 균형을 어떤 지점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동체문화와 연계시킬 것인가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이해 및 업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재단 이사장 혹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지역문화정책의 의제 발굴 및 연구기능의 결과가 지자체 지역문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지역여건의 이해, 행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인재의 양성 및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특정단체 간의 주도권 싸움터가 아닌 지역문화예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특히 늘 제기되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예술권력의 옥상옥(屋上屋)을 어떻게 피하고 지원금의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인가,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해 지자체 장의 치적(治績)으로 마무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등일 것이다.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갈등에 대한 절절한 해결책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찾아나가는가에 따라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의 의의가 제대로 찾아질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인 <지원>과 <향유>의 전략적 방향설정을 위해 고려해

야 할 요소는 ‘문화공간’, ‘지역주민’, 그리고 ‘지원/향유 프로그램’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즉 문화공간은 주민에게 쾌적함과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와 여건에 맞도록 조화를 갖되, 문화공간 특성에 맞는 균형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은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해 평등하게 향유해야 하며, 기획된 프로그램이 주민과의 교감을 이끌어낸다면 ‘주민참여’는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 ‘주민참여’를 위해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개발, 육성, 활성화이다. 자생적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이를 통해 주민의식이나 민주의식의 증대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통제 역할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민주적 지방자치체의 성장과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 주민의 자율적 문제해결 영역이 확대되고 비로소 정부-민간(주민) 간의 역할이 분담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질에 따라 정책적 내용과 질을 좌우할 수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조언이나 혹은 전문행정가의 정책집행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행정기관이 주민무마 혹은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주민참여를 이용하는 등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생적 주민참여,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지원은 ‘자기결정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커뮤니티 실현의 가치이자 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공간적 유대, 공동체 유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익히게 된다.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제도와 기관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통제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때 ‘통제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기준은 동시대의 가치관과 철학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주민들과 밀착하여 집행되는 문화기구로서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일관성’과 ‘잘못된 정책의 폐기’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 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재단운영자의 ‘취향’을 발휘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취향’이 적재적소에서 ‘걸림돌’없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의제 논의

1. 문화시민권 : 경제만큼 문화!

“음악을 안 들어도 살지만 병원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지요. 이것이 정치가들의 사고방식이지요. 이들에게 문화는 예술인 것이지요. 반면 우리는 문화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합니다. 문화의 집(Casa de Cultura)이 없으면 청소년들은 마약중독자가 될 것입니다.”(멕시코 국가문화예술위원회 문화교육국장이자 유네스코 자문위원 호세 안토니오 막그레고르, <이명박 정부의 문화시장화 비판과 진부적 문화시민권 모색>, 박정훈, p.44 참조)

도시정책에서 늘 고려하는 ‘삶의 질’의 향상은 문화의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과 밀접한 절박한 의제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가고 있으며 소득, 거주지, 학력, 연령 등에 따른 문화소외층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세계와 일상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과 실행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문화시민권>에 대한 고려는 문화복지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의 수요를 파악, 시설의 확충이 뒤따름으로써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이는 최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용도가 변경 혹은 폐기된 유희공간의 활용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사례>

- ⇒ 베네주엘라의 <엘 시스테마>나 볼리비아의 <몸의 학교>
- ⇒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 <문화예술아카데미>
- ⇒ 인천문화재단의 <공공미술프로젝트>
- ⇒ 대전문화재단의 <대전 생활속 예술 한마당>, <대전 생활속 예술활동 공동체 만들기>

2.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담론은 강대국으로부터 문화주권을 방어하는 논리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또 대내적으로 인종적, 계

급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에서 정책대상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이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또한 보호되고 표현될 기회가 주어져야 할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술발전과 더불어 예술의 표현방식이나 구조의 변화도 상당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요구된다.

3. 문화공공성

문화시장화는 공공성 축소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편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기본권 신장이 아닌 수익창출활동에 기울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문화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고 문화개발주의에 맞서는 대응담론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에 중요한 의제가 된다고 본다.

4.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인적자원 육성 : 직원 창의성 요구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보상은 문화재단 직원들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문화재단의 일 자체에서 느끼는 도전감, 흥미, 성취감 등에 근거한 내재적 가치는 직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몰입 혹은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동료들이 평가한 창의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문화재단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창의적인 발상과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반행정에 의한 절차나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일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하도록 직무를 재설계(job redesign)하고 업무 성과 특히 창의적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전환,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직무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등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창의적인 판단, 과정, 결과를 요구하는 문화재단에 있어서 직원의 창의성을 복돋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단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 : 조직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Solution은 무엇인가

- 조직구성의 문제
- 조직기능의 문제
- 자료의 문제
- 절차의 문제
- 정보전달의 문제
- 갈등관계 및 비밀유지의 문제
- 보수의 문제
- 지원의 문제

주제 발표 4.

익산, 르네상스를 꿈꾸다

- 익산문화재단의 출범과 올바른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하여 -

이 태 호(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I. 익산문화재단의 설립배경

1. 세계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 말은 문화적 역량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의 가치창출능력이 경제성장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경제가 삶의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가 삶의 기반이 되고 경제력이 문화를 선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문화의 힘이 경제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는 전지구화, 혹은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고 이제는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는 보편적인 문화의 팽창과 더불어 모든 문화를 닮은꼴로 만드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같음’ 속에서 ‘다름’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전략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화라는 개념 속에서도 ‘지방’이 중요해지는 양면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global) 가치인 ‘세계화’와 지역적인(local) 가치인 ‘지방화’가 충돌을 지양하면서 화합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상생(相生)의 개념인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이고 있는 지방의 자립형 전략이나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컬리제이션은 지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이제 국가나 민족이 아닌 지방 또는 도시의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 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또는 도시 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예술이다. 이때의 문화예술은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오랫동안 체화(體化)된 이미지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며, 사람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 창의성을 높이고 지식기반사회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도시의 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을 담당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변화

지난 참여정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지방의 자체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자립형 지방화가 점차적으로 추진 ·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정책 역시 중앙정부에서 민간기구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앙정부의 문화적 분권과 이양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문화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호응하여 정부는 성장과 균형이 병행할 수 있는 문화적 분권과 이양을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과정으로서 지역분권이란 정치와 행정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분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 간 / 계층 간 편중된 문화향유체계의 해소

우리나라는 문화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인력, 문화재정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에 의해 중앙(수도권)과 지역,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 등으로 문화적 학습이 양극화되고, 그 결과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역시 양극화됨에 따라 문화소비와 투자가 일부에 집중되는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역문화예술 발전 모색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발전 정책은 크게 지역문화산업발전과 지역문화예술발전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다. 지역문화산업발전전략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역문화예술발전전략은 문화 복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문화예술, 특히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과 원형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독특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주체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 문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민간영역의 주도적인 참여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공공영역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관(官)중심으로 운영되던 문화예술의 추진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民官)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3. 익산지역 문화예술계의 요구

‘익산’이 지역으로서 독자적인 문화예술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12월 출범한 익산문화재단의 출범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익산문화재단은 열악한 지역문화예술의 환경과 소극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익산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

1. 기초문화재단 현황

1990년대 중·후반부터, 특히 최근에는 광역시·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서울의 강남구와 중구, 마포구 구로구 등 4개의 구청에서, 그리고 부천과 부평, 안양, 전주, 익산 등과 같은 기초지자체인 시(市) 단위에서도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초문화재단 현황

재 단 명	설립일	주요사업내용	비 고
강남문화재단	2008.10	· 지역문화사업(축제 및 공연) · 문화예술 지원사업	서울
강릉문화예술 진흥재단	1999. 3	· 강릉문화의집 위탁운영 · 향토사 조사·연구와 사료 수집보존 ·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강원도
거제문화예술 재단	2003. 7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업	경남
고양문화재단	2004. 1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축제, 문화행사)	경기도
구로문화재단	2007. 8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	서울
김해문화재단	2005. 5	· 김해문화의 전당 관리 및 운영 · 김해미술관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경남
마포문화재단	2007.10	· 공연장 운영 및 지역문화사업(축제 등)	서울
부천문화재단	2001. 9	· 공연장, 여성회관, 박물관, 수련관 등 운영 ·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	경기도
부평문화재단	2006.12	·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업	경기도
성남문화재단	2004.12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 ·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문화도시 사업	경기도
수원화성문화 재단	2008.12	· 공연장 및 갤러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 ·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축제) · 문화도시사업	경기도

아산문화재단	2008.10	· 지역문화사업(4대 축제)	충남
안양문화재단	2009. 5	· 공연장 및 역사관,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사업	경기도
익산문화재단	2009.12	· 문화예술정책개발 · 문화예술 지원 및 교류사업 · 문화향유자 개발 지역문화사업(시민참여사업)	전북
인제군문화재단	2009. 8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축제 등)	강원도
전주문화재단	2006. 2	·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예술 교류사업 · 전주문화도시 브랜드 사업 ·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	전북
중구문화재단	2004.12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	서울
창원문화재단	2008. 2	· 공연장 및 갤러리 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문화사업(축제 등)	경남
청주문화산업 진흥재단	2001. 2	· 영상실, 체험관, 멀티스튜디오, 부대시설 등 운영 · 문화산업육성 계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사업 · 문화사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지원관리	충북
춘천시문화재단	2008.10	·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아카데미 사업	강원도

(가나다 순)

모든 지자체 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향수를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광역시·도의 문화재단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비해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초문화재단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연장이나 갤러리 혹은 예술센터(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20개 문화재단 중 15개 = 75%) 이밖에도 문화예술교육사업(13개 = 65%), 문화예술 지원사업(5개 = 30%), 문화예술정책연구 및 개발사업((5개 = 30%)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초문화재단이 이런 소극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중앙 및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재고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릇된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함은 물론 강력한 리더십의 바탕 아래 급변하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읽어내고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며,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여론수렴과 여론형성으로 기초지역 문화예술계의 터미널이 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을 둔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익산문화재

단 역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역할 정립을 해야만 한다.

2. 익산문화재단 역할

○ 익산문화재단의 역할 정립 방안

1. 문화재단의 기반 구축
2.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
3. 고유한 문화예술 정책 개발
4.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5.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6. 문화예술관련 기반시설 및 시립예술단 운영 등
7.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모색

○ 문화재단의 기반구축

문화재단의 기반구축은 매우 광범위하다. 지역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기반구축에는 익산지역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집중화함으로써 익산의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익산의 각종 문화예술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지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각종 자료들을 DB화하고 향후 아카이브화함으로써 자료실, 문화예술도서관 등을 함께 병행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아울러 축적된 각종 자료들은 익산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전문자료로 제공될 수도 있고 재단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

무엇보다도 익산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단의 고유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단계인 익산문화재단이 시급히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재단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러

한 방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다. 이러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으로 지원정책의 구축, 다양한 지원형태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운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고유한 문화예술정책 개발

이 시대의 문화재단은 개혁적이고 개척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조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익산문화재단은 끊임없이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민들의 문화향수 실현을 위하여 익산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역시 연구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익산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연구나 예술 각 분야별 전문성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은 우선 익산지역의 문화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비단 익산지역의 단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과 연령, 지향점을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과 두루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소통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재단 내외에 정착되면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그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기반도 정착될 수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신뢰를 얻는 일이야 말로 재단이 세상에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 커다란 버팀목이 된다. 아울러 익산문화재단은 단순한 사업비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다면(多面) 지원시스템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창조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얹혀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권력?)나 그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이득이 없으면 절대로 참여를 하지 않거나 주저한다는 사실이다. 따

라서 문화재단의 지원시스템에는 재원 중심의 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보구축 및 서비스 지원, 네트워킹의 허브로서의 매체메이커로서의 지원,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의 기능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창작을 위한 사업비의 직접 지원 이외에도 창작을 할 수 있는 연습공간을 임대하거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에게는 국내·외 문화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업의 후원과 예술단체와의 연결, 예술단체 실무자들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교육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단이 직접 특정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급할 수도 있다.

○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는 바로 예술가(창작자)와 수요자(향유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익산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문화향유자인 시민들에게 매개하여 건강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창작자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으로서 예술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조차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익산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익산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자 임무이다. 아울러 폭넓은 대중들과 호홉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예술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야 한다.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문화재단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이다. 모니터링은 수혜자의 사업을 참여 관찰하여 그 성과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지원결과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인다. 따라서 재단은 지원할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단체들의 효율적인 활용

지자체 출범 이후, 지역에는 많은 문화예술관련 시설들이 설립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문화재단들이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관련 시설들은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

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문화시설들 · 단체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만들어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익산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아울러 문화관련 시설들 · 단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는 한계성을 보인다. 따라서 익산문화재단은 각 부문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은 문화의 집을 통해 개발하고, 사적 자료를 통한 연구는 박물관이나 문화원, 또 예술인 관련 문화 사업은 문예회관을 통한 지원 사업을 구상하여 문화시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의 커다란 유기적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

○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모색

문화관련 시설과 함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익산지역의 축제는 소모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각 축제마다 자문단과 평가단이 존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익산문화재단은 축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독창적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축제들과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타 지역의 축제와도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익산문화재단의 비전과 과제

무엇보다도 익산문화재단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공연장 운영이나 정책의 심의 · 평가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일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¹⁾ 이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관련 시설과 단체,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의 틀 안에 수렴해서 여기에 속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

1)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이나, 고양 등의 문화재단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관련홈페이지 참고.

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이나 민간위탁 문화시설, 그리고 지역의 축제를 포함한 현안 문화이벤트 등을 문화재단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이나 아카데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지난해 갓 출범한 익산문화재단이 처한 예산과 인력 등의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들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얼핏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존의 시설과 단체, 사업들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들을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방침을 세우고 이에 합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진다면 결코 실현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마야흐로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기에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르네상스’를 꿈꾸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나가려 한다. 익산문화재단의 설립은 바로 이런 기운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따라서 재단의 운영주체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지역 문화예술계의 큰 힘이 되어야 한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대고 피할 수 있는 우산이자 버팀목으로,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디딤돌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 개별적인 사업들과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지역문화예술계와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익산문화재단이 그 설립목적을 충족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1) 문화재단의 자율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 흔히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강조한다. 팔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가 예술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도 그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금과 예산을 지자체에 의존하는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사실상 재정적으로는 지자체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경우, 문화재단은 운영상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집행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나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업무의 방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원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순환보직으로 인해 부서를 옮겨 다니게 되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행정공무원이 재단의 사업에 대한 권고 혹은 사업의 운영이나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낼 때, 때로는 이것이 문화재단에 대한 통제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얘기하는 관리·감독의 의미와 간섭과 통제의 의미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초문화재단은 시(市)난 구청의 위탁기관이지만 그 특성상 여타 다른 문화예술단체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문화예술 전문법인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초문화재단 운영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관료제도로부터의 일정 거리두기와 투명성과 책임성의 이행, 재단만이 지니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잘 축적되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은 현장이라는 실무영역과 가까이에 있기에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현장과 접목된 전문성의 축적은 학계나 연구기관 혹은 행정기관과는 차별화된 재단의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 아니다. 특히 최근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 재산과 사업을 직접 실행할 사업예산은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문화재단 기금의 효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단에서도 다양한 민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재원 조성 노력이 재단의 원래 설립목적보다 강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을 선도하는 썬크-탱크(Think-t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초문화재단이 이러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이 아닌 재단의 정책 및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의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초문화재단은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문화행정가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작업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의 정책입안자들, 각 지역문화재단의 전문행정가들, 예술단체 및 협회들의 비전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정책형성의 리더로서 재단의 역할을 자리매김해 나아가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확보와 합당한 대우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전문 인력의 확보’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초문화재단의 공통된 설립목적에서 주창했던 것처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고급 ·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능력과 경력에 합당한 대우(연봉 및 근로복지 등)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원고는 필자가 2010년 5월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했던 종합토론회에서 발제한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정립방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주제 발표 5.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조 경 환(부평아트센터 관장)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금 아트센터 설립 붐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국·공립 민간 등 637개 아트센터(공연장에 개념을 포함해서) 가운데 2000년 이후에만 328개의 아트센터가 개관하였다. 이는 경제적 성장에 의한 문화예술의 욕구와 지역 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설립의 경쟁, 그리고 문화마케팅에 확산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 시설인 지역의 공회당에서 출발한 문화시설이 이제는 공연, 예술교육, 전시를 포함해서 운영되는 아트센터로 극장건축의 개념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예술생산자와 소비자인 관객의 매개로서 예술경영이 도입되고 아트센터 운영에 반영되는 경향이다.

과연 왜 이렇게 지역마다 공공 아트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지역의 진정한 수요는 있는 것인가.

대규모 문화공간의 건립과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가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대이다.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정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우위 확보도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근래에 들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공공 아트센터의 설립 붐은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소비자로서의 욕구의 반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아트센터의 설립은, 지역의 문화소비자들이 지출에 예산 범위 내에서 효용이 가장 큰 소비재에 지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로서의 유입시키는 공연정책에, 작품의 주목성, 가격정책, 공연홍보 노출의 용이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2. 지역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진정성, 그리고 역할

여기에서 지역 아트센터는 지역민들의 진정한 문화예술 수요 창출이라는 고민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의 정책과 콘텐츠의 중심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선진국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도시에 모든 문화시설과 콘텐츠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에 각 지자체들의 아트센터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의 접근 방법이 부족했다.

지역의 아트센터가 왜 만들어져야만하고, 설립취지는 무엇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미션을 공유해야하며, 어떤 운영방침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는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아트센터의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후생복지지수를 충족시키며, 지역문화의 활동 거점으로서 지역민들에 문화향수의 확대, 늘 용이하게 생활 속에서 즐기는 창조시설로서의 친근감, 아트센터의 방문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는 아웃 리치 프로그램의 확충,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주목성을 통해 지역의 자부심이 되는 아트센터가 되어 지역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정주의식(定住意識)을 제고하는 것들은 아트센터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비전과 미션을 지역의 문화자본력과 결합하고, 그것을 향상, 발전시킨다는 세부 실행운영 방침에 따라 운영의 묘미(妙)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생각 한다

- 1) 부담이 없이 모여 만남,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시민이 지역 문화 살롱으로서의 거점이고 '커뮤니티 공간'이다.
- 2)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생산하는 창조적 활동 거점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감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타의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창조시설로서의 '놀이터'이다.
- 3) 신나는 문화 예술의 체험을 통해, 지역에 자부심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장소이다. 지역의 문화원형의 정체성 그리고 최첨단의 공연, 예술교육, 전시

의 감상을 통해 문화 예술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동충전소로서 정주의식(定住意識)을 느낄 수 있다.

- 4) 지역과 연결되고, 문화예술을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동기부여를 아트센터가 지향하고 이는 지역의 홍보와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 5) 지역의 공공 극장의 새로운 기준인, 우수한 무대 시설, 커뮤니티 공간마다 생동감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을 자리하며, 아트센터의 내(內) 뿐만 아니라 광장까지도 지역 시민들이 늘 함께 자연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는 접근 용이한 휴식처이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 1) 공연, 전시, 예술교육(사회교육포함) 등 예술정보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 2) 지역의 문화 복지 후생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지지를 확보하여, 창조시설(創造施設)의 이미지 부각을 통해 최고의 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일상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3) 시민과 공연 예술과 만남 장소이다.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시민 모두가 예술가와 만나고 서로 자극하고 성장 적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4)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화제를 생산해내는 지역 문화정체성의 발신기지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생활의 문화향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다수(多數)의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5) 지역의 예술 놀이터 및 문화 사랑방 그리고 문화예술의 휴양지로서 아트센터가 존재해야 한다. 문화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하고 새로운 발상들이 열정을 가진 직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 제공되어야 한다.
- 6) 집회시설(정치 공학적 목적), 관리시설(행정 통합적 목적), 창조시설(전문

적열정)이 소통되고 아트센터가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 7)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개척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되
는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하다.

따라서 지역의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
서와 그 지역의 시민들과 미션들을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아닌가 싶다.

- 1)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느끼고 싶고,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찾아
내는 기획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희망 강좌, 희망 공연 등)
- 2) 문화 소외계층 30%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극장을 방문하는 시민 위주의
홍보. 마케팅에서 학교나 양로원, 병원 등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문화 이
벤트를 주선하는 아웃 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개발.
- 3) 사계절(四季節) 야외 축제형 프로그램을 통해 극장 야외공간을 활용해 아
트센터 중심의 사고(思考)아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광장(廣場) 문화
이벤트의 창조적인 개발.
- 4)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트센터 직원들의 열의(熱意)와 성의(誠意).
그리고 이를 통한 는 진정성을 갖춘 문화 공간의 이미지 제고.
- 5) 지역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술기획, 경영, 홍보.
마케팅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역 경쟁력을 갖춘 예술단체의 성장기반의 구
축.
- 6)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확산시키는 국제교류의 강화.

3. 지역의 문화 경쟁력이 국가의 문화 경쟁력

이러한 것들의 이미지가 누적되었을 때 아트센터는 진정한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성공한 사례로 인구에 회자되는 아트센터는, 하드웨어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늘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구성원들의 각고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서였다. 아트센터를 평생의 업(業)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에너지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후원, 공정한 지역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평가 등을 통해 아트센터는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의 다변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지역 예술단체의 자립성 확보와 시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의 국가경쟁력이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의 문화경쟁력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예술단체를 아트센터와 연계하여 상주단체를 통해, 지역에의 성장모델로 육성하려는 지원정책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은, 지역문화의 경쟁력이 타 국가에 지역 아트센터에 비해 탁월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 자본력에 맞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의 차별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공 아트센터의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션은, 아트센터의 시설들을 다양한 즐거리로 변화시키고, 공간들을 예술놀이터로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희망하고, 보고, 듣고, 즐기고 싶은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중적 흥행성에 영합하지 않지 않으면서 지역의 수요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근 용이한 공간들을 접근 용이한 테마를 갖고 있는 공간들로 만들고 끊임없이 화제 거리를 만들어, 문화예술의 발신기지로서 인식을 심어주면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공공 아트센터를 지역 소통의 심장(Heart of Communication)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것임이 명확하다.

4. 맺는말

저명한 프랑스 경제사회학자인 기 소르망은 ‘문화 없이는 훌륭한 국가도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문화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는 다량 생산을 통한 무역의 경쟁이 아니라, 예술창작가들 즉 미술가, 작가, 영화인, 가수 등도 그 어떤 국가의 지도자보다 훌륭하게 서방에서 한국의 대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향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의 중요성 매우 중요시하고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알 수 있다.

이제 국가 간의 문화 콘텐츠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우위도 지역의 문화시설을 통한 문화 콘텐츠 확보가 지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상호간에 지역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관건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는 지역 문화 경쟁력과 지역 문화 자본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미션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문화재단은 계속 설립이 되겠지만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제 발표 6.

문제의식의 기초로서 문화예술과 지역, 그리고 제도에 대한 단상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전망을 위하여 -

최 춘 일(문화기획자, 경기문화재단 문화협력실장)

1. 기능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출현

예술은 장소, 시간, 사회, 경제, 정치의 제약 속에서 맥락과 차이를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생성되고 있다. 예술은 사회와 일정한 상호영향력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일종의 장을 형성한다. 예술은 개인(특수성)과 사회(보편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인다.

예술의 범주와 경계는 장르, 산업,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예술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과 현실의 영역에서는 장르 또는 범주들이 더욱 공고하게 경직되어 가는 경향이 교차하고 있다.

더하여 예술은 기능의 속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자본주의에서 밝히고 있는 자기계발의 상품화와 산업화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될 운명으로서 문화예술이 출현하고 있다. 제품 생산의 불량율을 낮추거나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음악, 최근 확장하고 있는 예술치료 요법,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의 전면화와 산업 등을 통해서 예술이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확장 되어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문화나 예술에 대한 정의와 시대적인 속성의 변화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기능의 변화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배와 신앙, 순수(이데올로기)와 상품화, 기능의 강조와 도구화의 과정은 그 같은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2. 문화예술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성격

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생산 활동(창작)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직간접적인 기여(또는 상호영향)를 한다. 기여는 장시간의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화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재에는 매우 빠르고 의식적인 형태로 분배되고 배치되기도 한다.

현재의 특징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계(또는 개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향관계로 인해서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과 공공성의 문제가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거나 문화예술생산 활동이 공공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문화예술과 정치, 사회,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 예술의 장과 그 영역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중층적이고 가역적인 관계의 속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가에 대한 정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술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선이 있는 것처럼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여러 가지가 있다.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공적제도와 예술인 내부의 인정 절차에 따라서, 또는 예술 장 내부의 매개집단, 예술 장 외부의 경향성 등에 의해서도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관습에서의 정의와 예술을 꿈꾸는(욕망하는) 개인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발생한다. 이 같은 괴리와 갈등은 산업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산업시스템에서 선택된 예술가의 지위와 역할에는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품 생산자와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부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의 소식들은 새로운 유형의 창작 집단과 소비 집단이 탄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술창작자의 탄생과 사회적, 제도적 역할과 기능 변화에 따라서 프로슈머가 탄생했다. 이들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소비를 통해서 창작물의 재해석과 생산의 가능성을 축적하는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소비자와 생산자, 매개자들 상호 의미 교환(소통)에 대한 연구와 재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적인 능력 또는 선택 과정의 한 특성이 재해석(또는 새로운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소비자의 시장에서의 위치가 시장원리의 확장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장에 구조화 되었다는 비교적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교환의 결과 시장에 공급하는 대량의 소비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해서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예술 행위의 특성상 상호교환의 결과로 축적된, 소비자 자신에 의해서 창조된 문화·예술 작품이나 공연을 만들고 향유 할 수 있는 2차 생산자의 지위로 확대 되고 있다.

일상적인 문화생활 대부분이 창작 또는 아트라는 용어로 각색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미디어와 디자인의 영역에서 대중문화의 경향을 이루며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일종의 감성적인 소비활동과 감성표현 활동의 재조직(재구조화)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구성물들의 범주간의 융합을 통해서 창작의 개념과 범주의 흐릿해짐 또는 확장이 예술가 또는 문화 생산자의 정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배적인 문화예술 생산 집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점의 변화와 대중문화

정책적으로는 창의성 또는 창조역량에 대한 강조와 예술창작활동의 표현과 놀이라는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의 회복과 창조역량을 신장한다는 전략적인 강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화예술의 감성적 능력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의해서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과 감성의 결합 또는 친화’와 같은 언술 속에 담겨 있다. 감성은 소비를 위한(소비는 생산의 동력임으로) 창조력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감성소비는 자본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으로, 감성은 무한히 재생되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다. 감성의 생산과 소비 역시 산업에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감성의 재생 속도 역시 자본의 순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의 일부 경향은, 순수하다고 간주되었던 예술창작 또는 문화생산의 영역 주변으로 학제간, 장르통합, 세대, 다문화, 권력, 문화연구와 같은 담론적 용어들을 접합시키고, 그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담론적 현상들이 벌어지는 장을 아우르는 용어로 문화예술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의 영역과 미묘한 겹침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로망을 실현시키는 실체로서 관람객과 일반시민, 컬렉터의 영역에서도 역시 이러한 미묘한 겹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겹침은 시장에서의 겹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형성·순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물들의 유통이나 확산에 직접적인 제약(생태계의 구조와 맥락의 변형 요소)으로 나타나며, 통상 문화예술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정되어온 통합과 갈등의 사회적인 영향력의 기제들이 작동하는 영역의 변화(혹시 왜곡이나 변조)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들은 대중문화의 스타와 예술가들 사이에 문화적 영향력(지배력)의 구조변화와 그 진행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예술가와 대중스타와의 간극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들에 대한, 그리고 예술가들이 스타들을 미묘하게 차용하거나 직접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매니아와 팬들의 형성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의 형성은 이러한 점들을 보여주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예술가의 지위가 최종적인 소비자나 투자자의 해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예술가의 표현이 공적이거나 사적인 투자의 가치로 확산되는 민감도가 높은 창작물의 동시적인(소비자, 투자자, 생산자, 매개자 들 간) 전유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대중문화와 순수하다고 여겨온(일부의 개인들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예술 영역 간에는 감성적 엔트로피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은 감성의 코드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대신 여러 가지의 감성 유지방법들 중의 하나로 지위가 전환되는 것이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사한 감성적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공공영역은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을 하고 지원을 한다. 무형적 가치라고 부르는 이 같은 문화 예술 활동을 공공적 가치 또는 사회적 자원으로 수렴하려고 한다.

이 지점에서 대중문화와 통상 고전적 형식, 아방가르드 형식, 지식과 정보 등이 교착의 관계를 형성하며, 혼종과 상호수렴을 통해서 경쟁과 서로 닮기를 수행한다. 이 같은 현상은 단체와 제도들이 이러한 교착 구조 내에서 경쟁과 닮기의 역학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수준(지자체 행사 등에서 흥행성의 문제, 박물관 미술관의 방문객 수의 문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의 문제 등)에서 단체와 제도들이 속하거나 주변을 구성하는 그룹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외부적인 강제보다 문화예술계의 일부 작가나 기획자들에 의해서 내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조점에 따라 외재적인 요인들(보편과 민주)의 영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최종적으로는 대중을 통해서 정당성과 판단의 근거를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은 누구인가 묻도록 만든다.

4. 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장소와 지역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루커만(F. Lukermann)의 장소개념의 분석을 통해서 장소의 개념이 가지는 6가지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 1) 위치개념이다. 위치개념은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연결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장소는 공간적인 변화와, 내부와 외부로 가진다.
- 2) 장소는 자연적·문화적 요소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각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를 이루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이것은 모든 장소가 고유한 실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 3) 모든 장소는 고유하지만 공간적 상호작용과 이동체계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장소는 순환구조의 일부이다.
- 4) 장소는 국지적이다. 장소는 더 큰 지역의 부분이고 지역분화의 초점이 된다.
- 5) 장소는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생성되고 있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거나 낡은 요소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장소는 독특한 역사적 구성요소를 지닌다.
- 6) 장소는 의미를 가진다. 장소는 인간의 믿음에 따라 규정된다²⁾.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지리적 능력을 삶의 직접성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 이러한 능력의 고양은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과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파악 될 수 있는 데 그러기 위해서 「장소와 장소상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4가지의 주제를 탐색하였다.

- 1) 장소의 경험과 개념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
- 2) 장소 경험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강도를 탐구하였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장소 간에는 깊은 심리학적 연계가 있다,
- 3) ‘장소의 정체성’과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본질의 분석이다.
- 4) 장소감과 장소에 대한 애착이 장소와 경관 만들기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것이다.

지역(region)은 특정한 장소에 기반을 둔 구분이다. 때로는 장소(place), 영역(area), 위치(location)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사전에서는 “일정

2)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학술, 2005, pp.28-29.

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³⁾ 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느 방면의 땅” 또는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⁴⁾로 기술하고 있다.

지역의 경계는 ‘동질성과 응집성의 여부, 특정한 개념의 중심점의 적용, 동질적 현상의 유무와 범위, 특색 또는 특질의 여부’ 등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관념적 구성물로서 지표면의 면적을 구획하는 지방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은 특정한 성격이나 성질, 관계 등에 의하여 구획되고 구분되어진 일정한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으며, 구성요소로서 도시나 촌락, 행정단위로서 지방자치체 등을 포괄할 수 있고, 일정한 특질로 분류된 세력권의 영역들, 특정한 장소와 서로 연계되는 관계망의 구조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설명을 통해서 문화와 지역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장소 경험과 심리, 장소의 정체성, 장소감과 장소 애착과 현상을 통해서 지역과 문화와의 내밀한 관계를 읽을 수 있으며 인종적·문화적·언어적 특징, 기후나 지형적 특징, 공업이나 산업, 경제적 특화의 측면, 행정단위, 국제정치관계 등의 용어를 통해서 지역과 문화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소로서의 국가, 지역으로서의 국가, 장소 또는 지역으로서의 도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류와 연구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은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과의 겹침 현상은 지역과 관련한 문화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연구할 때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5. 시간과 기억의 맥락과 표현체로서 지역

지역은 시간과 장소의 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기억의 누적체이다. 누적의 과정은 삶의 과정이며 동시에 광의적인 문화예술의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은 문화예술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삶이나 문화예술을 담지하는 구성물이며, 지역의 삶이나 도시를 드러내는 포괄적인 표현형식이자 표현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의 표현체이자 패턴을 구성하는 현장으로서 도시 또는 마을은 문화적

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3권, 두산동아, 1999, p.5767.

4) 국립국어연구원, 앞책, p.5754.

인 잠재성의 실체화와 문화·예술 흐름의 매개와 매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형식이자 표현체로서 지역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특정한 지역에서 미적 또는 감성적 경험과 역사적인 기억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감성적·미적 경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역사적 기억들의 맥락화와 역사적 기억의 해체(또는 재창조)의 수준을 파악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지역의 문화예술의 맥락 :

전통이나 관습으로 유지되어 가는 지역 문화·예술의 맥락은 이질적이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영향력(문화적인 파급력 - 여기에는 다양한 힘의 관계들이 교차되어 나타난다)에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또한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지역이나 계층, 역사에서 상대적인 것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예술의 영향력과 변화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힘과 욕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지역 역시 욕망의 구성체 이다.

2) 지역의 유지 :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역사적 기억과 전통에 대한 의식적인 강화와 재해석을 필요로 하며, 도시와 마을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감성적 에너지와 사회적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과 감성, 감정 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해서 추구되거나 만들어진 문화·예술은 차이와 자긍심(존재감과 동질감)을 만들어 내며 지역이나 사회의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차이와 자긍심 그리고 잠재성은 보편성으로서 지역의 지적·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적 감수성과 태도를 만들거나 유지시키며 동시에 개인의 특수성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관계한다.

3)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에서 갈등과 통합의 도구라는 인식 :

문화·예술은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에서 갈등과 통합의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이러한 갈등의 관리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일종의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불어서 문화·예술이 갈등의 관리와 통합의 매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의 역으로도 설정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일정한 지역(도시 또는 마을)의 감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4) 지역의 감정과 지식 자본으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위치 :

감정과 지식 자본으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이러한 위치는 특정한 시대에서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출하고 추출된 것들과 문화·예술의 상관적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누적된 시간과 기억의 실체들, 현재의 지표물들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좌표를 상상하고 설정할 수 있다.

강조하자면 시간과 기억 그리고 표현체라는 가정을 통해서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획의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도시의 잠재적 가능성의 방향을 결정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는 화해의 수준을 결정하고 미래를 향한 시간과 기억을 재맥락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내의 가역적이고 중층적인 연대 또는 공존의 가능성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공간의 압축과 교환 · 교류체로서의 지역

◦ 세계화의 흐름

도시 또는 지역 간의 또한 문화예술의 교환·교류의 과정은 정치경제적 교류와 더불어 인류가 탄생한 때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는 과거의 중국과 이슬람 문화의 이동과 근대 이후 서구문화의 이동을 들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월드컵과 같은 사건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간 문화예술의 상호 수렴과 혼종화(하이브리드)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간의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압축되었으며 그로인해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들이 매우 일상적인 경험과 체험의 영역으로(비록 이미지와 소리의 형태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 환율, 증권, 광고, 지식, 정보 등의 교류 / 해류와 대기, 그리고 철새와 어류의 이동과 비교 해보라) 자리 잡았고 동시에 짧은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특정한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거나 의문시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역할과 위치가 강조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역과 세계가 바로 결합되는 세계화(글로벌리즘)로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지역이 상대하거나 수렴해야 할 새로운 잠재적 영향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영향력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화

적 갈등과 변화의 가능성을 수반하기도 한다.

- 1) 국가의 통제나 조절의 완충 역할이 없이 모든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교류와 교환의 꿈(희망 또는 욕망, 이상들)들이 흘러들어 감으로서 개인과 지역의 존재가 세계와 직접적인 대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모 노마드로 표현되는 이동과 교류의 존재의 출현과 욕망의 현상은 지구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산업적이며 사회적인 반응으로부터 재차 강조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의 구성 범주로서 지역이라는 새로운 자각의 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 2)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문화에 대한 입장과 세계를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를 유발시켰으며 빠르게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장과 관점들 간의 갈등은 급격한 문화적 충돌과 조우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들이 증가하는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피상적이든 피상적이지 않든 개인과 국가, 지방정부 어느 영역에서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3) 또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의 증가 현상과 산업화 인력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력의 이주 문제는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문화 문제는 단순히 이주자 문화의 확산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주체를 인식하거나, 타자의 주체로의 동화라는 문화적 현상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 지역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

- 1) 국제적인 이주 현상은 미묘한 성격을 갖는다. 전통적인 가정관의 붕괴와

노동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관습의 유지와 해체가 하나의 가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타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지배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노동은 노동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계화 되며 이주노동자의 자원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같은 문화적인 관습의 유지와 변형의 진행되는 현장은 바로 지역이다.

- 2) 지역은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이거나 간에 문화적인 교류와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수용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고 도시의 정체성(가변성을 내포하는 잠재적 요소로서 성격이나 성질의 의미로서)은 이 같은 문화적인 충격들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정체성은 특정한 지역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정체성은 지역이 유지하려는 욕망의 지도와 같은 것이며 동시에 지역이 끊임없이 상대화시키는 것들에 의해 규정되고 변형되는 것이다.
- 3)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형성되는 특정한 지역들은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작동하면서 축적된 것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며 그 유형적인 실체들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담지체(집합체)이다.
- 4) 이같은 현상들은 본질적으로는 개인들에 의해서 연결되고 매개되지만 개인들을 묶어내는 일정한 지역(또는 장소)에서 영구적이지 않은 형태로 하나의 문화로 결구되고 고정된다. 지역은 문화를 생성시키는 지점인 동시에 문화가 흐르는 하나의 매개지점이며 문화가 사회적인 형태로 정착하는 장소이다. 문화를 생성과 흐름의 관계로 보게 될 때 지역이 가지는 문화예술적인 담지체로서의 모습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어떤 문화는 생성과 흐름의 제약을 받기도하고 또 뛰어 넘기도 한다.

7.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 탄생의 전사

세계화에 따른 현상 이외에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 재구조화와 사회적 재적응이 진행되었다. 이때에 나타난 포디즘적 축적의 급격한 폐기와 함께 유연적 축적(flexible accumulation)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은 영국과 미국의 많은 중공업 중심의 대도시들의 쇠퇴화로 나타났다. 포디즘(Fordism)의 경직성에 정면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적 축적은 노동과정이나 노동시장, 제품, 소비패턴의 유연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생산부문의 출현과 금융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상업적·기술적·조직적 혁신의 엄청난 강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⁵⁾ 또한 부문간·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유형에 있어서 급속한 변동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자본주의 세계의 새로운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포함한다.⁶⁾

이러한 유연적 축적의 성립에 따라서 새로운 적응에 실패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던 도시들은 쇠퇴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쇠퇴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화를 극복하기 위한 장소·공간·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진자본주의의 재구조화 과정은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간의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문화는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⁷⁾

쇠퇴화된 도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은 세계화의 현상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제의 유연적 축적의 결과를 반영하면서도,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도시와 지역특성화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도시가 기업적 성격을 강화해가는 계기를 제공했다. 유럽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197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간관계와 장소들의 상대적인 입지에 변화가 생기고, 구산업지역의 쇠퇴와 하고 침체가 거듭되었다. 이러한 유럽 도시들의 변화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필요성을 촉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도시들은 도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본의 공간이동성 가속화, 자본의 국제화와 단일 유럽시장의 형성 등으로 내부투자를 유인하려는 지역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도시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소마케팅을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Wilkinson 1992) ‘장소차이화 전략’을 구사(Harvey 1993:7-8)하게 되었다.⁸⁾

장소마케팅을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 ‘장소차이화 전략’은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나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소들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장소마케팅은 일정한 장소를 소비하고자 하는 단위가 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재배치하거나 재구조화하고 그에 필요한 매력과 유인

5)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5, p.186.

6) 데이비드 하비, 앞책, p.186.

7) 이무용,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 마케팅”, 『공간과 사회』 제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1997, p.197.

8) 이무용, 앞글, p.203.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매력과 유인요소로서 이미지의 향상과 차이화 전략은 장소 간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장소의 특성을 유지하고, 특정한 장소에 대해 강한 인상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단위가 만족해하거나 소비단위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지역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차이화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시들은 주로 문화전략을 채택한다. 이러한 도시의 문화전략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도시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새로운 경제적 구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데,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문화도시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던 3가지의 전략 모델은 첫째, 통합모델(integration model) 둘째, 문화산업 모델(cultural industris model) 셋째, 판촉(또는 소비자중심주의)모델(promotion or consumerist model)이다(Griffiths, 1995 참조). ‘통합모델’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시켜 주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며 도시의 정체성과 공공적 측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볼로냐와 로마와 같은 도시가 있다. ‘문화산업모델’은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배포를 경제적인 부 창출의 중요한 형식으로 보고 도시성장과 도시에 대한 독특한 친근감(affinity)과 매력을 유발하는 잠재력으로 간주한다. 1980년대 런던과 셰필드와 같은 도시가 있다. ‘판촉모델’은 예술을 도시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계획의 이윤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국의 ‘도시선전주의(City Boosterism)’에서 처음 출현한 모델이지만 많은 유럽도시들에서 수용되어 왔으며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의 성장을 지향한다.⁹⁾

이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은 도시마케팅을 위해 도시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시의 경관과 공연, 전시, 축제, 독특한 시장과 지역의 역사, 문화시설, 쇼핑까지도 도시의 생산물로서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문화도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나아가서 서비스의 집합체로서 거주자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과 시각적인 아름다움, 쾌적함, 편의성,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면서 도시의 산업체계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체계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예술 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하면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재강화하는 순환적인 체계를 지향한다.¹⁰⁾

이러한 반영구적 순환의 창조 가능성 그것이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핵심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 이면의 성격(자원의 집중과 고갈, 무질서의 증가와 통제(의 증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도 기계나 상품처럼 도시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특정한 용

9) 이무용, 앞글, pp.198-199.

10) 주정만서준교·이효원, 『문화도시의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pp.35-38.

도의 폐기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건축가 정기용은 문화도시 개념은 “문화도시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도시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전제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선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상정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가 바로 선 도시’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조적 측면에서 적정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형태적 측면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뜻한다”¹¹⁾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도시가 흡사 문화를 도구로 홍보와 마케팅만을 이용하여 도시를 상품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도시의 형식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들은 구조, 기능, 형태의 측면뿐만 아니라 향유하는 주체들의 문화행위와 삶이 실현되는 장소, 지속가능한 자연과 도시라는 새로운 가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都市는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들, 그들의 삶과 문화를 매개로 시스템화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체계 유지에 적합한 산업·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구조·기능·형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도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는 차이와 관계의 망상(網狀)에 위치함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살펴보지 못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창조라고 하는 용어의 과잉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남아 있다. 어쨌든 창조도시의 핵심은 차이와 잠재성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동원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여서 이데올로기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 성찰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지역과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문화도시 또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 구상의 필요성은 왜 대두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8. 지역에 대한 사고의 변화 - 경쟁의 출현과 차별화

11) 정기용, “문화도시의 개념과 관점”,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화연대 2002, p.16.

장소로서 지역이나 도시는 단순히 하나의 행정 구역이 아니다. 경계의 유동성과 자원이나 가치, 의식의 흐름을 생성하거나, 매개하거나, 집적하기도 하는 독특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시를 구성하는 자원들의 유기적이며 또한 단절적인 활동에 의해서 시간의 매듭들을 연결하고 이어간다. 일반적으로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은 경제활동과 상호간에 가역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관계를 통해서 지역은 일정한 특성이나 특질을 갖게 된다. 또 그 특질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일이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문화도시나 창조도시 전략은 이러한 지역을 특성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과 함께 특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지역특성화를 정의해 볼 수 있다. 특성화가 “어떤 사물에만 있거나 혹은 그것을 특징짓는 독특한 성질”¹²⁾을 현재화하는 것이라 할 때 지역특성화는 “도시나 마을 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징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독특한 성질을 현재화시키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의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재적 요인을 통해서 정교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도시에 관한 상상과 기획은 1970년대의 세계경제의 변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획의 주요 내용이 되어 왔다. 세계적으로는 제적인 정치·경제적 갈등과 함께 다문화의 증가와 대응, 세계경제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도시 재생전략, 그로부터 파생되고 시도된 지역 또는 권역별 문화도시 전략, 특정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과 같은 유인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삶의 질과 쾌적성을 증가시키려는 환경도시 전략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왔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문화적 갈등의 수렴 능력과 감성적 소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경제적인 가치의 재발견은 지역이나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유연적인 축적과 세계화의 진행으로부터 발생한 기회요인들과 결합하여 도시 간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문화도시 정책과 뉴욕이나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적으로 볼 때 앞에서 설명한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화의 흐름의 영향과 그에 부응하는 국가정책의 경향성으로서 도시 경쟁력이라는 개념의 차용은 국내의

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전자사전』, 브리태니커백과사전 2003, CD-Rom. 2003.

도시간의 차이 또는 차이를 강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차용된 도시 간 경쟁력의 개념은 차별화 성격을 갖는 매우 미묘하고 애매한, 독특하고 의아한 발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제는 동일성으로서 지역 정체성이라는 감각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꿈과 희망, 욕망 등)에 대해서 과도한 단순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를 통계로만 확인되는 극도로 추상화된 장소이자 양적 존재로 탈바꿈시키며, 그로 인하여 도시간의 경쟁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도시의 문제를 삶의 집적체나 표현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통계적 서열과 우열의 문제로 파악하도록 만든다. 삶의 질 또는 삶의 정향성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은 정책에서 사라지게 된다. 경쟁과 그러한 추상화의 과도한 결과는 도시의 삶을 속도와 긴장 속에서 놓이도록 하고, 도시와 도시민 전체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이다.

◦ 특수성으로서의 차이의 발생과 소비 그리고 보편성의 추구

도시간의 차이는 지정학적 갈등의 가능성(다른 지자체와 차이)과 통합(유사성과 연대)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매우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취향이나 경제활동의 산출물의 크기와 정치적인 영향력의 크기 정도로만 이해되어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다루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관계 그리고 누적된 특성(전통과 관습)과 세계화(보편과 일반)의 문제, 차이의 구성과 동질의 유동성 수준 등은 미묘한 지역의 역학을 조성한다.

이 같은 현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문화의 강조와 국제적인 창작의 경향성의 추구, 세계자본에 편입되는 지역자본, 국제적인 트렌드의 동시적인 발생 현상에서 나타나는 긴장 등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같은 긴장은 비 도시형 광역지자체에 속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잠재적인 갈등의 구조로 내재화 될 수 있다. 더 심하게는 지역 내의 잠재적 갈등을 재생산하는 의식의 지형으로 구조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지역에서 추구해온 문화·예술의 관습과 전통이 문화가 가지는 세계적 보편성 추구와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대립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지역이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자체 중심의 정책과 전략들이 수행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많은 예술가들이 특정한 지역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삶과 가치들을 탐색하는 작업을 창작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은 현대의 경제·문화·예술 활동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정치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삶의 실체를 구현하는 장소로서 지역과 도시에 대한 탐색은 꽤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활동 들, 이것은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해가는 과정이다.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과 다르거나 닮고자 하는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차이를 소비하는, 그리고 차이의 소비가 존재의 정당성과 변화를 생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차이화와 지배위계의 문제로 전락되는 순간 과시증적인 도식으로 빠져든다고 하는 점은 예술가, 비평가, 학자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지적되고 있는 점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도시가 꿈꾸는, 도시가 욕망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떤 대상을 타자화 하여 자신의 모습을 주체로 구성할 것인지, 주체는 타자와 어떠한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지역이 직접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에는 도시의 문화·예술의 지역적 특성화와 세계적 보편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성화는 이러한 주체와 타자 사이에서 차이가 형성되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보편화는 차이를 인정함으로서 얻게 되는 보편적 이해를 의미한다. 보편화는 단순히 타자들을 위해 맞추어 준다거나 맞추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차이의 인정과 차이의 소비를 통해서 타자와 주체가 동기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9. 문화도시에 대한 상상의 여건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독특한 역사는 특정한 시기별로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강제적으로 재편하면서 지역 간의 역사와 ‘차이’의 아름다움을 거세하거나 변질시켜왔다. 내재적인 요인으로서 국내의 지역특성의 강제적 재편과정은 일제강점기의 병참화나 자본수탈을 위한 거점 성격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 개발독재 시대의 새마을운동과 수출지향의 산업화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지역개발의 획일적인 결과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지역이나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 일종의 단락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기억과 회상의 거세 형태로 지역의 자연적이고 도시적인 모습들과 함께 사람들의 삶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극도의 변형을 가한

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발생한다. 도시가 개방적인 유기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단락화라고 하는 시간적이며 장소적인 상처는 지역이나 도시 발전에 결절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든다. 동시에 그 결절 점은 지역이나 도시의 재맥락화(또는 절합?)의 잠재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로 연결되게 된다.

박정희의 집권 이후로 형성된 전통문화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환상의 주입은 한동안의 전통이 되었다. 그 결과로 특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획일적인 도시경관과 지역축제들로 넘쳐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목표들이 지역성과 묘하게 교착되는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전통문화의 파괴와 개발에 대한 환상이 빚어낸 후유증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을 재맥락화하고 전유하는 일은 현재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 세계화의 영향력

외부적인 환경으로써 세계화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화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장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문화영역은 “나라 사이에 거래되는 소비제품 브랜드의 전세계적 급증, 대중문화 아이콘과 생산물의 전세계적 지배, 전세계 모든 대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성방송으로 동시에 전해지는 사건 보도, 이런 현상만큼 눈에 잘 띄고, 광범위하며, 확산되기 쉬운 지구화(globalization)의 표현도 없을 것이다. 가장 공공연한 지구화의 상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코카콜라, 마돈나, CNN 뉴스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인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이 무엇이든, 아주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구화의 형태가 바로 문화적 형태의 지구화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¹³⁾”는 언급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표현은 문화영역이 갖는 세계화의 시각적이며 구조적인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영역의 세계화 현상은 지구적 상호연결성의 범위와 강도, 속도 그리고 그 영향력의 성격과 세계화의 기반을 이루는 구조화 과정, 제도화 및 계층화를 통해서 그 특징과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13) 데이비드 헬드, 앤터니 맥그루, 데이비드 골드, 브라트조너선 페라틴,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비평사, 2002, p.517.

지구적 네트워크의 범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영어가 지배적인 지구적 언어로서 지위를 확립했다. 또한 문화산업분야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장이 매우 크면서도 불균질하게 형성되어 있고, 문화수용과 전파를 위한 수단들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대중문화적인 가공물들이 서구 내부에서, 그리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작기는 하지만 대중문화나 문학양식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흐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연결의 강도 역시 국가내, 지역간 정례화된 이동과 통신의 양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며 모든 미디어가 디지털화하였다. 지구적인 흐름의 속도는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운송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비용도 저렴해졌다.

영향력의 성격에 있어서는 세계차원의 문화·경제·정치적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비용이 변화하고 해외 원조가 가능해졌으며 또한 문화영역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인 NGO 활동이 증가했다. 미디어 기업, 문화 생산품 시장의 일국적 소유·통제시스템에 국제적인 요소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문화 프로젝트와 정보통제, 문화산업의 국가주도와 민족문화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대중관광으로 국지적이거나 고밀도의 경제·문화적 관계가 초래되었으며 민족정체성 형성의 문화적인 맥락이 변화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변화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의 광범위한 확산에 의해서 가능하였으며, 원격통신·케이블·인공위성·컴퓨터·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사용 증가와 체트여객기와 같은 빠른 운송수단의 개발 역시 중요한 변화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적 상호작용과 하부구조들은 상법과 무역법에 의해 부분적이지만 점차 규제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적 기구의 규제능력은 미약하다. 이와 함께 계층적으로는 대중문화에 대한 대규모의 호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사회 내에서 특히 세대 간에 불균질적 계층화가 형성되었다. 주로 부유한 사회에 국한되는 관광의 대량소비와 함께 엘리트들의 지적·문화적 권력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다. 서구문화의 흐름이 지배적이거나 점차적으로 흐름이 다변화되고 있다.¹⁵⁾

◦ 문화의 표현체로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상상

세계화 또는 세계성 속에서 한 국가의 문화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리가 중국성, 일본성, 미국성, 영국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지역 문화는 세계라고 하는 좌표에서 쉽게 인식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의 국가들 역시 세계라고 하는 좌표에서 읽히고 소비된다. 우리는 쉽

14) 데이비드 헬드·앤터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 브라트조너선 페라틴, 앞책, pp.576-577.

15) 데이비드 헬드·앤터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 브라트조너선 페라틴, 앞책, p.577.

게 지역으로서의 국가들이 다시 다층적인 하부의 지역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의 문화라고 하는 범주는 매우 미묘하고 애매한 조건에 의해서 표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 지역문화의 일부이고 그 자체와 수평을 이루는 지역문화들의 선별적 선택에 의해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좀 더 풍부하고 다원적인 문화의 구성체로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지역 문화는 위계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 방식이며 그 현상 방식은 행정적으로 통제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건하에서 지역문화는 자신의 현상(표상)구조를 갖는 자신의 특질과 중심을 갖는 하나의 문화이며, 대한민국의 문화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성립된 지역문화의 선별적인(선택을 누가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택적인) 표상체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지역 전체를 동시에 표상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문화는 국가의 문화로 단일하게 표상되는 문화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지역의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문화들이 문화권의 전체 모습을 구성하는 성단과 같은 구조를 갖는, 각기 중심이 다른 생성구조와 흐름, 위상을 갖는, 그리고 취향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지역문화가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의사결정 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국가 단위의 문화의 설계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추상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오류의 가능성은 더 많이 나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역시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러할 것이다. 그 것은 근대성(또는 인간의 지식체계?)으로부터 야기되는, 지식과 정보의 추상화 보편화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의 한 측면이다. 문화는 추상화의 수준에 따라서 특질과 본성적인 측면이 희석되면서 문화의 고유한 성격인 직접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과도한 추상화는 지역성을 간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억압의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에서 지역성의 문제가 강조되고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경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지역적 직접성의 빈곤과 특수성에 대한 천착의 부재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념과 내용, 수행 방법에서, 그리고 예술경영이 지시하는 문화예술의 장의 구조와 관계의 도식화를 롤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전국을 아파트 천국으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특성화,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

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영역은 사회라고 하는 광의적인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것이 옳다. 예술인과 매개자 그리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삶으로부터 터득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파악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 지역 문화예술의 행정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

문화예술에 있어서 시간적인 특성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의 흐름과 당대의 수평적 범주 속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지정학적이고 지리적인 특성은 특정한 지역의 동질적인 요소들을 구성함과 동시에 특정한 루트를 따라(또는 형성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와 수요를 연결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지리적으로는 경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일과 동시에 중심을 형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적 원리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은 표상하는 실체이면서 동시에 표상이 완료되지 않는(끝나지 않는) 잠재적인 에너지로서 자기 가치를 유지한다.

문화로서 지역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계의 누적체로서, 행정구역간 경계의 교차와 연속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시 간 경쟁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시를 행정적으로 추상화한 개념을 근간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문화예술의 본질은 이러한 경계 지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경계를 허물며 소통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자신의 에너지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문화의 복잡성과 다중적 관계성, 중첩적 특성, 물질적 측면들은 근대의 관리기제의 토대인 행정적인 (단순화, 양화, 추상화, 직선적 위계, 위계별 권한의 위임으로 설명될 수 있는)구획으로서 중앙과 지방과 같은 구분이나, 도시·군·구와 같은 행정구역과는 본질적인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구역 중심의 문화정책은 국가중심의 문화정책과 짝을 이룬다. 흐름과 매듭의 맥락에서 행정구역이 그것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구획될 때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점들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정부 또는 제도 기구와 관료는 행정이 관장하는 구획된 경계를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규정하고 그 경계의 내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려는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일종의 행정단위(통치기제 또는 관리기제)와 문화(자율에너지, 확산과 수렴, 경제와 삶)의 교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근대적인 행정제도가 갖는 매우 차가운 특징이다.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수단으

로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권 역시 광의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를 매우 폐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지역문화에 좀더 유연하게 접근 할 수 있다.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지방행정의 단위로서 도·시·군·구라는 행정단위 만의 문화가 아니라 일정한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성과 폐쇄성을 갖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을 정책으로 다룰 때 지역이 단순하게 행정구역으로 수렴될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지역과 문화는 행정적으로 분절되지 않고 행정단위의 이면에서 행정구역간을 연결하거나 건너뛰는 흐름이나 네트워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과 문화의 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구의 행정단위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의 개념을 적용하고 매개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영역은 자연, 경제,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범주의 지리적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지역의 동질성을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타 지역과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를 변별하고 그 변별점을 살펴보도록 만드는데, 그 변별점이 모두 행정구역 안에서 딱 떨어지게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인 축에 시간의 축이 가로 지르면서 지역에 대한 역사적 관념을 표상하는 자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구획으로 추정하는 행정구역은 역사적 사건과 합리화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 영향력과 관계망의 자장이 겹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특정 지역의 문화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교차하거나 가로지르는 일정한 권역을 예상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현재의 행정단위로 포괄하거나 기획할 수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대상 권역을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같은 의문은 지역과 지역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문화권역의 설정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과 성과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지자체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 연구와 공동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 자원에 대한 재고 - 문화·예술의 제약과 가능성

앞서 제기한 위상적, 시간적, 지리적 질문들은 구체적인 답을 예측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품위와 경쟁력을 갖춘, 자긍심이 넘치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서 던져졌다. 질문에 내포된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그 답은 현실적인 조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지역의 현실적인 자원과 현실의 조건을 구성하는 현실적이며 잠재적인 자원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1) 문화예술 활동도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사회적인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무엇을 가치로 삼을 것인가,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표현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예술은 구체적인 표상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는 삶이나 사회의 목적(원리와 유사한)으로 존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목적이나 원리의 측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우리들의 삶의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어떤 가치는 삶을 과멸적이며 모멸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2) 그러한 구성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이상과 희망을 우리는 종종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비전은 개인 또는 집단이 여러 조건과 지식을 궁구하여 얻어낸 어떤 동의적인(완전하게 집합적일 수가 없다) 상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전이라는 이상화된 욕망에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3) 시민적 합의를 전제하는 지자체 단위의 비전에서는 시민들의 합목적적인 가치가 표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들의 합목적적인 가치는 정신적이거나 감정의 형태로도 표현되지만 물질성을 매개해서 구체적인 현실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단계적인 수준에 따라 자원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의 조건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원조차도 자원이 가지는 특수성의 문제와 자원을 다루는 전문 인력과 제도의 수준에 의해서 활용 가능성의 편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실제적인 자원과 자원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물질적, 비 물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작성된 자원들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효율성(가치 추구 집단의 수준이 반영되고 그 집단의 내재적 접근에 기초하는)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을 위한 질의 정도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1) 자원은 일반적으로 비전의 현실화 과정과 결부 되어 있다. 비전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현실의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고 전유되는가에 따라서 자원의 범주와 사용하는 수단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은 비전의 가치와 현실적 표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고 분석되어야한다. 또한 가치와 현실화의 수준에

따라서 자원의 수준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현실적인 자원과 잠재적인 자원의 분포 및 분석을 통해서 자원의 수준과 역량을 객관화하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재배치에 있어서 유연성, 장기적인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은 반드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자체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접근성이나 기회요인으로 파악할 수 도 있으며 잠재적인 능력까지 광범위하게 전략적인 자원으로 이해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3) 자원은 대체로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재정과 인력(지역의 경제력과 인적자원)과 같은 유동적 성격의 핵심자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원 수준과 잠재적인 가능성의 수준을 동시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장기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상을 실현하기위하여 자원을 분석하고 부족한 자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대체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방법론과 지역의 독창적인 사업수행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4) 이 같은 자원분석과 사례연구 과정 자체가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지역을 해석하는 하나의 훈련과정이며 문화의 축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자원의 범주 분류와 관계의 구성은 평면적이며 분절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장과 자원들 간의 관계와 수준들 간의 위상 도표를 작성해 보고 또한 도상차원에서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전략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과 효과적인 방법을 설계할 수 가 있다.

특별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용어가 남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참고하기의 과정이 베끼기로 전략하는 것이 우리들이 자주 대하게 되는 지역 발전(또는 개발)전략이다. 벤치마킹은 벤치마킹으로 끝나야 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은 컨셉이나 형식을 베끼거나 흉내 내는 일이 아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수행하기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인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자원의 규모와 정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충당했는가, 그 수행과정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위해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이 같은 자원 요소들의 분석 이후에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자원의 활용과 순환이 가능하다면 공공의 공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기능과 유사한 자원의 순환¹⁶⁾기능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미

16) 여기에서의 순환은 문화예술자원이 소비된 뒤에 그 결과로 어떤 점들이 산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새로운 자원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지 나름대로의 예측 모델을 갖는 수준의 순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한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 심심풀이용 소비재가 아니라 사회적 소비재로서의 위치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제도나 기구의 공공성과 창작물의 공공성의 문제가 긍정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이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2차 지표물의 분류 역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이 가지는 문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물질적, 잠재적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상상과 이상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 비전화의 민주적 절차의 구성, 자원의 범주와 분포,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의 수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 실제적인 자원의 질적인 수준과 잠재적인 에너지의 수준의 파악, 도시와 문화 · 예술의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문화 · 예술적 지표물의 추출, 자원의 유지와 보전, 잠재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계획과 통계 유지와 같은 일들은 자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 맺음말 - 제도로써 문화재단에 대한 재고

문화재단의 설립이후에 1. 문화예술계가 지원금의 배분에만 신경을 쓰면서 생기는 갈등과 창작물들의 하향평준화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2.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민간재원의 축소로 공공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들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3. 공공기금에 대해서 사적인 전유가 정당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은 지역 내의 역학관계와 행정기관의 독점지배로 지역의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다.

문화재단은 대부분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공공기금의 출연으로 설립하고 공공기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으며 공공기관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이다. 정부(중앙과 지방 모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수요나 사업수요를 처리하거나 수행하는 제3섹터로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적영역) 사이를 중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영수입을 가지고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이 지역의 정서와 요구에 심각하게 상충할 경우 공공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갖는

민간 독립법인으로서 문화재단은 사업수행의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로 지역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전략의 수행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접근방법과 자원이 필요한데 한 개의 기관이 이 모든 영역과 범주를 완전하게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민간의 영역과 공공영역의 경계, 그리고 중앙정부나 광역과 기초의 경계와 같은 현실적인 중첩들이 발생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같은 문제들은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재단의 양적 증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양적 증가와 그에 따른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민간기구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하고 지방정부로 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장 받는 것이 필요해 질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과 대안의 제시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조건들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관계하는 장소로서 지역이라는 지역, 역사적인 기억과 흔적들,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 공무원과 방문객들,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의 혼재, 제도와 기구들을 고려할 때 그것은 일종의 개방된 생태계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일종의 관계망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망 자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의 각 범주들 간의 위상을 구성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범주들은 앞서도 구분해 보았던 문화예술계 또는 장, 예술가(창작자, 생산자), 향유자(소비자, 2차 생산자), 시간의 축과 교차하는 도시 또는 지역, 자원, 제도들로 이루어지며, 지역에서 그 범주들은 지역의 조건을 반영한 상호간의 이해와 의존조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위상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같은 위상적인 범주들의 분류는 나름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틀이 형성된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분석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화예술 범주 간 관계의 틀을 고려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을 분석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훨씬 강하게 현실적인 체감을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생산활동과 문화예술 소비자를 동기화시키고 과거의 유산과 미래를 동기화시킴으로써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재단의 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최근의 변화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문제들 제도와 자원을 짚어보면서 지역과 지역문화,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을 생각해 보았다. 지역, 시간, 문화에 대한 성찰의 대상으로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제도는 아마도 질 높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공급,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주체화, 삶과 사회의 표현체로서 지

역과 문화의 활성화와 같은 몇 가지의 방향들을 놓고 고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문화예술계 또는 장, 창작자와 향유자, 시간과 장소의 맥락이 교차하는 지역, 제도와 기구들의 위상 간의 적극적인 동기화와 활성화, 다원성의 출현과 차이가 있는 지역들에 대한 상상, 제도들 간의 경합과 제도들의 애매한 경계를 뛰어 넘는 수행성의 확대, 이 모든 것들의 매개체이자 표현체로서 지역에 대한 상을 다듬어 가는 개방적인 유기체, 이것이 지역의 이상과 가치를 매개하는 상상적 제도 또는 이상으로서 문화재단의 모습이 아닐까?

부록 1.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 예술행정의 역할분담¹⁷⁾

- 경기도의 예를 중심으로 -

오 세 형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위원)

1. 지역의 문화환경 변화와 문화재단의 역할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이후로 광역 및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설립이 가속화 되었고, 2009년을 기준으로 광역 9곳, 기초 23곳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9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 표1. 광역과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설립현황(2009년 기준)

구분	광역문화재단(설립연도)	기초문화재단
지역	경기(97) 강원(99) 제주(00) 광주(04) 서울(04) 인천(04) 부산(09) 대구(09) 대전(09)	강릉 거제 김해 중구 부평 전주 창원 아산 구로 강남 마포 춘천 청주 인제 (14곳)
	경기지역 문화재단	부천 고양 성남 하남 의정부 화성 안양 안산 수원 (9곳)

※ 일부(안산, 하남, 의정부)의 경우 공연장명칭을 쓰고 있으나 재단법인화 했고 기능과 역할에서 타 기초문화재단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 포함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는 반면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상당수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거나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상호간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현

17) 이 글은 2010년 5월 10일 '정책으로 답하다' 토론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된 글로서, 이번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의 쟁점토론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하여 저자의 양해를 구하여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편집자-

재까지 기초와 광역문화재단간에 커다란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주체(단체, 개인)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기초문화재단은 주로 일반시민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업영역에 있어서나 사업대상의 중복성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었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해당부서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초문화재단의 역할확대를 견제하여 지자체의 정체성을 보전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기존 지역예술계와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광역문화재단과의 중복요소로 자주 거론되는 형편이라 상호간의 역할분담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지원사업중 중복요소가 강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된 7개 시에 이관하는 방법 등으로 중복성을 해소해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기초문화재단과의 교류가 빈번해지자 자연스럽게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치의 가능성도 발견하였지만 문화정책 차원에서의 가치의 충돌도 발생하였다. 간단히 말해 광역의 ‘문화 민주화’적 가치관과 기초의 ‘문화민주주의’적 가치관이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하며 장래에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에게 기대해야할 정책적 시각과 역할분담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의 시각과 수행방법

<기초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의 운영과 함께 지자체의 홍보나 경제적 효과의 목적을 위해 문화예술축제나 문화행사를 위탁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통해 인지도 있는 고급예술이나 대중문화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고비용이 드는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를 직접 제작하거나 타 공연장과 공동 분담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증가되고 있고, 안산, 의정부, 성남, 부천 등의 경우 전문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수년간 실행하였다. 이는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을 시설운영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전문

적인 예술경영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과제로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기존의 기초지자체의 문화사업을 정치적 맥락이나 경제적 논리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시각은 아직 유효한 면이 많지만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공연장운영 외의 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었고 이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경영인과 기획자는 기존의 관료적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문화에 관련된 질적인 욕구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게 마련이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공연축제>나 <전문프로그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들 전문인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확대되고, 시민영역과의 관계도 긴밀해지는 등 지역문화의 잠재적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력사업이 증가해 왔는데, 이는 기초문화재단의 전문인력 증가와 사업다양성에 대한 욕구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의제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초문화재단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경기도의 경우 구도시는 전통적인 산업기반의 약화라는 문제, 신도시의 경우 배드타운이라는 제한적인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의 정주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민주주의’적인 정책시각이 부각될 것 같고 반면에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의 민주화’라는 지배적 관점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문화의 민주화’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급문화의 유산을 보존/확산하는 것과 현재적 형식으로서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술의 위계를 인정하고 창작자를 특권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며 예술소비 그룹을 늘여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고급문화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불평등한 분배만을 문제삼게 된다. 반면에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은 평등적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고급문화의 특혜를 문제삼고 예술의 위계와 특권을 수정하려는 관점이다.¹⁸⁾

18) ‘문화정책의 의제형성과 변화’ (최종철) 1997

그래서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은 지역문화를 주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권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며, 지역문화정책은 이러한 지역문화의 본성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생활문화/일상문화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적 담론들이 생산되도록 건전하고 안전한 토대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놓이게 된다¹⁹⁾

예를 들어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두 주체는 본래 입장이 상이했는데, 광역문화재단은 ‘우수한 예술활동을 선별하여 지역주민의 향유권을 신장’하려는 반면에 기초문화재단의 경우는 ‘시민의 향유권을 위해 <필요한> 문화생산물을 공급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역량이 마련된 기초문화재단 중 일부는 더 진전하여 ‘시민주체의 문화예술도시’와 같은 관점으로 정책적인 정체성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있다.

<광역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이 특정지역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해왔다. 반면에 도시와 농촌, 인구밀집지역과 전원적인 환경이 혼재한 경기도의 환경적 요인은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도 노출시켰다. 그래서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력있게 문화기획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일정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문화주체 육성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관점은 ‘문화의 민주화’라는 관점이 우세하며,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어 왔다. 물론 한편으로는 시민의 문화향수관련 사업, 아마추어 동아리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이는 재단의 비전이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라기 보다는 위 사업들을 기존정책의 보조적 방법론으로 삼아온 시각이 다분하다. 대부분의 광역문화재단은 창작활동 지원을 우위에 두고 이 두가지 관점의 사업을 병존시켜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관점은 광역문화재단의 조사연구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설립당시 지원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의 제도적 관점을 수용한 것이다. 광역문

19) 지역불평등 해소 및 문화민주주의 확대 전략으로서의 지역문화정책 활성화 방안/ 임정희, 2003

화재단 설립 후에 독자적인 정책적, 사업적 개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중앙단위에서 기생산된 정책과 가치관의 전제를 답습하거나 지역현실에 맞게 재가공하거나 응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비록 광역문화재단이 중앙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려했지만 장르중심적이고 예술가 중심적인 기본적인 전제는 암묵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문화재단은 자연스레 정책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중앙의 정책을 지역곳곳에 실현시키도록 전파하고 지역의 현장정보와 변화를 모아 중앙과 소통하도록 매개하는 역할도 하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중앙정책에 등장한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의제는 수년간 활발하게 논의된 후 여러 정책들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문화관광체육부의 4대 정책에 포함된 ‘생활속의 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2009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을 광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관사업의 취지나 이를 수행하는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적 시각은 예술(가) 중심적인 문화민주화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들이 그것인데 대부분 우수한 예술(가)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주민은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3.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협력과 갈등사례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전문인력간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공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광역의 입장과 기초문화재단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기초문화재단에서 홍보성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면서 광역문화재단의 지원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을 반신반의 하는 기초지자체와 갈등을 빚던 기초문화재단의 입장에 광역단위의 재정지원은 명분과 지지역할을 하면서도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이 있었다. 또한 광역문화재단은 추가적으로 지역의 의제를 다루는 소규모 축제(다문화, 소수자 등)나 기획사업을 제안하고 공동기획하여 공연장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하였다.

※ 표2.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공동추진한 기획사업

사업명	협력한 기초재단	시행연도
안산국제거리극 학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6~2008
국제공연예술워크숍(2007)		
더불어사는 사회문화제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외	2006~2009
천상병예술제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제작 워크숍 (의정부음악극축제)		
국제레지던시 ‘땅따먹기프로젝트’	재) 성남문화재단	2007

경기문화재단은 시민의 향수권신장을 넘어 시민을 문화주체로 육성하는 취지의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와의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기초문화재단에 이관하고, 이를 통해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문화시설운동을 넘어 다층적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려 하였다.

※ 표3. 2008년 경기문화재단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 선정사업

사업명	단체명	협력기관
우리가 만든 음악극축제	음악극아카데미운영위원회	의정부예술의전당
2008 동두내 옛소리 특성화 프로젝트	동두내옛소리특성화운영위원회	동두천문예회관
배우며, 만들며, 공감하며 Season2	상록수연극스튜디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동체 예술아카데미 ‘소통과 만남’ 프로젝트2	광명문화의집기획위원회	광명문화의집
문학과 시민의 창조적 만남, 그 이후	너른고을문화창작아카데미운영위원회	광주시민회관
안성맞춤 사진영상 워크숍	안성맞춤문화브랜드추진위원회	안성시민회관

※ 표4.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사업명		협력 문화재단	매칭규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009년 (4개市)	재)부천문화재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하남문화예술회관	매칭합계 총 562,000천원
	2010년 (7개市)	추가재단 재)안양문화재단 재)고양문화재단 재)화성문화재단	1:1기준 총461,000천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의 예술활동, 아마추어동아리, 문화예술교육 등 범주가 다양한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위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랑방문화클럽’등의 기획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협력사업을 포기하였다. 당시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이 특이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여타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공연중심의 사업을 과다선정하거나, 지자체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획사업을 포함시키려 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남의 경우는 문제의 초점이 달랐으며 광역문화재단의 방향성과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초문화재단은 태생적으로 ‘문화민주주의’라는 시점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같은 타이틀의 ‘시민의 향유능력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광역문화재단은 예술의 보급 및 확산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고 기초문화재단은 시민공동체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 표5. 성남문화정책 3단계 계획(좌)/ 성남문화정책의 1단계 3개년의 추진성과(우)

(출처 : 성남문화재단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2010. 1)

시민주체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3단계 (2014~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구현하기
2단계 (2009~2013)	문화공동체 운영체제 확립하기
1단계 (2006~2008)	시민주체 형성의 기초 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정책추진성과	사업추진성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이 만드는 문화예술도시’의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구축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성남인의 예술창작 활동진흥 ▪문화통화시스템 기반조성

성남시는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아래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생활예술지원법’의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위의 계획대로라면 성남의 시민

주체형성을 위한 사업은 차후 10년이나 더 광역문화재단과 다른 입장에서 진행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시적 의견충돌이라기 보다는 두 재단이 지향하는 목표자체가 다른 것이 아닐까. 앞으로 계속 기초문화재단이 생겨나고 전문인력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고민하게 되면 이런 시도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의 몇몇 사업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질적 변화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1년 단위의 회계시스템과 기준관행으로 일정한 정량적 결과물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성과물은 과정을 체크하는 워크숍과 평가회를 꾸준히 열고 이를 기록한 자료집이 중시되고 오히려 문화클럽의 발표회 등은 평가요인에 있어서는 거의 중요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업의 장기적 지속성과 상호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사업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나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사업목표의 핵심이고, 이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시민의 내면적인 자족감과 가치관 변화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된다.

얼마 전 경기도 내의 문화재단 실무자들의 모임인 <경기문화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 광의의 ‘지역활성화’와 ‘삶의 질’에 관한 넓은 정의를 담은 정책을 개발하기를 요청받았다. 이는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적 가치가 꾸준히 충돌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협력과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광역의 정책적 관점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문화예술교육사업(2009년 10억 규모) 등의 강화 및 확대를 꾀하고 있어 이는 다른 형태의 시민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광역문화재단이 추구해온 예술가 중심의 정책적 관점이 더 이상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에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상당부분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그동안 중앙단위의 지역문화활성화 정책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본 사례는 지역에 기반한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적 방향을 선취하고 있다고 보이며 여타 기초문화재단의 사업방향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정립을 위한 과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기초단위에서 순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문화역량이 강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제고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맞게 정책적 시야를 넓혀야 하는 과제가 제시된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은 기존 예술가 중심의 정책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와 시민주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영역의 창출을 위해 시선의 전환과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광역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중앙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관을 내재화 해왔다. 문화정책 연구를 당면 정책과제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기여로만 간주하고, 문화정책 연구에서 전제로 삼는 개념들과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지역적 관계에 대한 비판적 긴장을 위한 노력과 접근을 하지 않은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광역문화재단의 주체적인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도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중앙단위와 기초단위의 수동적 매개자의 역할에서 광역문화재단만의 정책과 시야를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문화적 쟁점의 지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이를 가치충돌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문화향유자인 시민을 주체로 내세우면서 실제 문화정책의 대상 대부분은 여전히 고급예술인 점,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 개념이 무의미함에도 장르 개념을 존속시키는 과거지향적 관점, 확대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장에서 예술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측면이 암암리에 억제당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특정예술이 배제되는 사례 등은 제고될 여지가 있다. 이는 예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²⁰⁾ 광역문화재단은 기존 문화예술활동지원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민주체의 육성과 관련한 의제와 사업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추어동호회 지원정도의 소극적 범위를 넘어 기초문화재단의 문화도시전략, 시민의 문화주체화라는 방향과 공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전문인력의 충원으로 문화기획의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자체의 기존 관행과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광역문화재단 또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공연장은 우수한 콘텐츠만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교육하고 결집시켜 문화주체를 만드는 곳임을

20) ‘인문학으로서의 문화정책 연구’, 박소현

자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적, 인적인 한계로 대상이 소수에 제한되거나 특권화될 우려가 있어 예술가육성이나 예술진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만연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소재를 특성화한 축제, 행사, 문화사업의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 밀착한 문화’ ‘동시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체적인 문화’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이를 위해 시민의 정책적 개입과 자발성 강화로 자치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사업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된 제도적 노력으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행정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정책 홍보나 문화재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볼 때 빠른 변화의 흐름에 속해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화민주주의의 탄생배경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용학문을 넘어 폭넓은 인문학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과의 연계를 통해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성남 등에서 보여지는 중장기적 시민문화프로젝트의 사례는 그동안 선호되었던 해외 사례라는 선행적 지표와 정책적 방법론과의 관행적 결합논리의 패러다임을 넘어 문화정책의 철학과 가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록 2.

지역문화재단 현황

연번	재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연락처	설립일	주요사업
1	강남 문화재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	www.gfac.or.kr	02-3447-0423	2008. 10.30	페스티벌개최, 꿈나무 발굴육성 지원, 문화예 술 창작·보급, 문화교류 등
2	강릉 문화예술 진흥재단	강원도 강릉시 교2동 408 문화예술회관	www.gncf.or.kr	033-647-6800	1998. 11.03	문화예술지원
3	강원 문화재단	춘천시 삼천순환로 86 강원국악예술회관 2층 강원문화재단	www.gwcf.or.kr	033-251-3407	1999. 12.27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 사업, 무대공연작품제 작지원사업, 공연예술 단체집중육성사업, 창 작공간지원사업, 레지 던스사업
4	거제시 문화예술 재단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26-33 거제문화예술회관	www.geojeart.or.kr	055-680-1000	2003. 10.7	
5	경기 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www.ggcf.or.kr	031-231-7200	1997. 4.30	문화정책 과제개발 및 정보서비스, 문화예술 생산·유통 촉진, 문화예 술 공공가치 확산, 지 역문화균등발전, 지역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6	경남 문화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5-1		055-283-7117	2010. 3.2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 문화 예술활동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도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창의성 제고,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산업 육 성지원 등
7	고양 문화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77	www.artgy.or.kr	031-960-9718	2004. 1.28	축제사업, 조사연구사 업, 공공미술사업
8	광주 문화예술 진흥위원 회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97 (사동 177-35)	www.gjacc.or.kr	062-670-5700	2004 .12	지원사업, 일반사업, 문 화바우처
9	구로 문화재단	서울시 구로구 의사당길12	www.guroartvalley.or.kr	02-2029-1700	2007. 7.24	지역내 문화관련 인프 라 조성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연번	재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연락처	설립일	주요사업
10	김해 문화재단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별관4층	www.ghcf.or.kr	055-330-6593	2005. 2.4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 아크 김해, 김해시민의 총 관리 및 운영, 문화 관광전략사업 개발, 문 화예술단체 및 문화예 술헌활동 지원, 문화예 술훈금의 조성 및 운 영, 지방향토사 연구지 원
11	대구 문화재단	대구시 중구 대봉동 60-10 대구문화재단	www.dgfc.or.kr	053-422-1201	2009. 7.29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연 활동지원사업, 기초예술 진흥사업, 레지던스 프 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12	대전 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89 (대전문화예술의전 당 3층)	www.djfa.or.kr	042-477-2266	2009. 9.24	대전문화의 창달, 문화 예술기금의 조성, 문화 예술사업의 지원과 교 육, 대전문화예술의 국 제화 추진
13	마포 문화재단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0-3	www.mapoartcenter.or.kr	02-3274-8614	2007. 9.12	전문공연장 개선사업, 이용시민 편익사업, 홍 보·마케팅 네트워크 구 축사업, 문화이미지 개 선사업
14	부산 문화재단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층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051-744-7707	2009. 1.21	문화창작 활동지원을 통한기초 예술진흥, 소 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획 확대, 문화예술창 작 기반구축,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반구축
15	부천 문화재단	부천시 한아름마을로 17 복사골문화센터	www.bcf.or.kr	032-320-6300	2001. 10.01	문화연계망 구성,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 화예술교육, 문화예술기 획, 공모사업, 도서관운 영, 박물관운영, 문화예 술 DB구축
16	부평구 문화재단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451-1	www.bpcf.or.kr	032-515-6471	2006 .12.04	문화예술진흥, 공연예술 진흥, 부평기적의도서 관, 부평역사박물관, 부 평문화예술회관
17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02-3290-7000	2004 .3.15	시민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 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 울대표축제 및 공연예 술제 운영지원

연번	재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연락처	설립일	주요사업
18	성남 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	www.sncf.or.kr www.snart.or.kr	031-783-8000	2004. 12.1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 체성 구축사업, 사랑 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우리동네문화공 동체 만들기, 문화통 화
19	아산 문화재단			041-540-2602	2008. 7.20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정책연구와 제안, 문화예술의 창 작·보급과 조사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 류, 문화유산의 발굴· 육성과 보존, 축제
20	안양 문화예술 재단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50번지	www.ayac.or.kr	070-8667-8100	2009. 5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안양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안양역사 관, 알바로시자홀
21	익산 문화재단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56		063-843-8811	2009. 12.30	문화예술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 급, 문화예술활동 지 원,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 문화재단 인프 라구축 사업
22	인제군 문화재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번지 하늘내린센터	www.injeart.or.kr	033-461-0373	2009. 7.10	군민을 위한 문화사 업, 하늘내린센터 운 영, 문화통화/문화나 눔
23	인천 문화재단	인천시 중구 해안동 1가 10-1	www.ifac.or.kr	032-455-7100	2004. 12	지원사업, 문화사업, 연구출판사업
24	전남 문화예술 재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 전남개발공사빌딩 11층		061-287-5206	2009. 4.22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개발, 창작지원과 육 성, 기금조성 및 운용, 주요축제 및 이벤트 기획·대행, 기업메세나 활동권장 및 사업위 탁, 지역 전통예술과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연구·보존 활동, 문화상품 개발 및 활 용, 남도예술은행, 도 립예술단 운영
25	전주 문화재단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0-3	www.jjcf.or.kr	063-283-9225	2006. 1	세계로 가는 천년전주 문화 및 네트워크, 전 주문화예술 활동 컨설 팅 및 마케팅 지원, 전주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제 시, 천년전주 대표 브 랜드 육성, 문화예술 기반구축 사업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연번	재단명	소재지	홈페이지	연락처	설립일	주요사업
26	제주 문화예술 재단	제주시 이도1동 1244-4	www.jcaf.or.kr	064-748-9812	2001. 4.25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 제주문예진흥기금, 제주사랑티켓, 문화바우처지원사업
27	중구 문화재단	서울시 중구 홍인동 131번지	www.cmah.or.kr	02-2230-6600	2005. 325	구민공연진행,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예술아카데미 운영, 중구 문화정책 연구 및 수립·진행, 중구문화사업 진행
28	창원 문화재단	경남 창원시 용호동 2	www.sungsanart.or.kr	055-268-7900	2008. 2.20	성산아트홀운영, 월드퍼레이드 페스티벌, 공연과 작품 전시사업 등
29	청주 문화산업 진흥재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01-31	www.cjculture.org	043-219-1006	2001. 2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문화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관리, 창업보육 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마케팅활동 지원사업, 문예진흥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30	춘천시 문화재단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 시청별관	www.ccf.or.kr	033-262-1360	2008. 11.24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춘천문화아카이브구축, 춘천문화아카데미 등
31	화성시 문화재단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www.hcf.or.kr	031-267-8800	2008. 12	문화정책 실현, 창작예술지원, 문화수혜정책, 지역문화시설 통합운영관리, 대형축제 기획 및 운영

※ 자료 출처 : 재단별 홈페이지

강남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문화예술지원
 - 자매결연기관 문화교류
 - 한미친선음악회 : 주한 미8군 사령부와 2004년 12월 자매결연을 통한 음악회
 - 제5사단음악회 : 국군 제5사단 위문공연
 - 꿈나무 육성사업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참여 기회 제공
 - 양서번역사업
 - 도서선정 작업 및 검증과정을 거쳐 세계 여러 분야의 도서를 소개하는 브릿지 역할
- 페스티벌
 - 강남 패션페스티벌
 - 강남 댄스페스티벌
 - 양재천 가족시네마
 - 대모산 축제
- 예술단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 1997년 창단
 - 강남합창단 : 1989년 창단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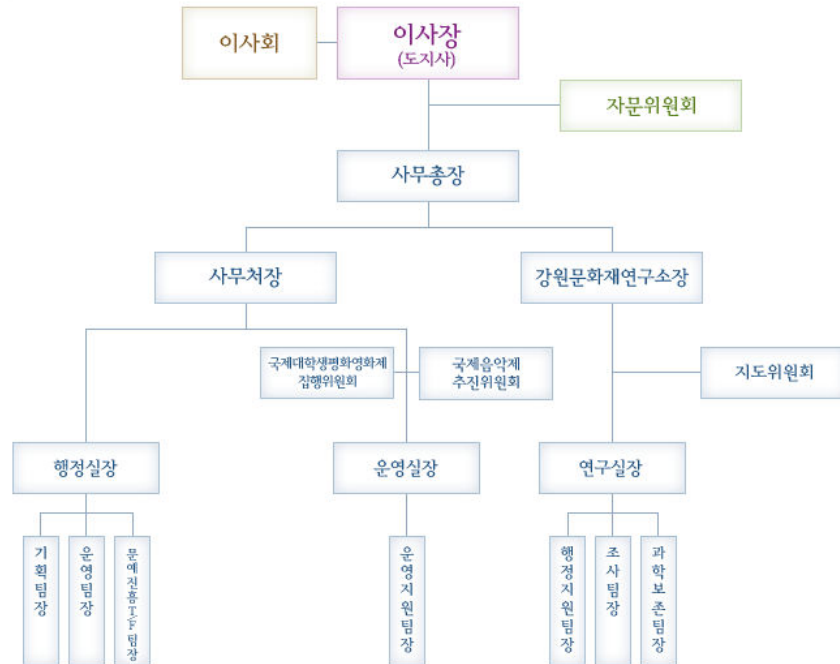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현대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지원
 - 문학, 전시, 공연, 신진예술가 지원
-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과 지원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국내외 교류와 지원
- 지역문화행사의 개발·개최 및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강원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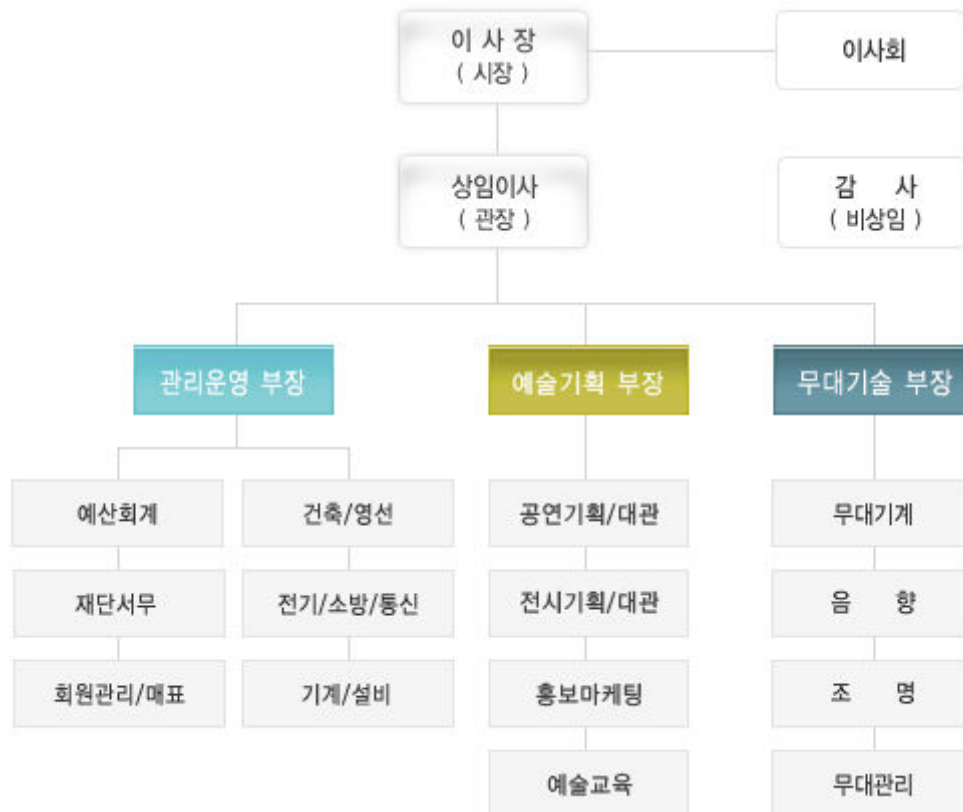


□ 주요업무

- 문화예술진흥지원
 -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
 - : 2009년 188억원 조성, 2010년 12억원 추가조성으로 200억원 달성
 -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 : 문학, 전시·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 지역축제,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분야 전 반에 매년 20억원 지원
 -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 강원문화예술의 국제화
 - 대관령국제음악제
 -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 강원문화 뿌리찾기
 - 문화재 발굴·조사·연구·보존
 - 다큐멘터리사진 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제공
 - 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경기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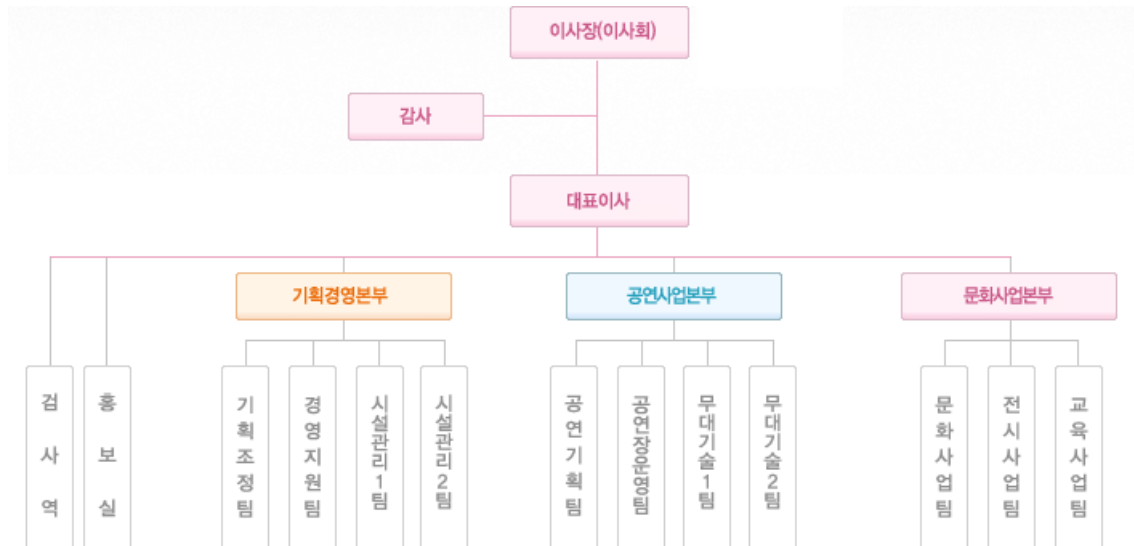
분류	사업	세부사업
문예진흥사업	정책과제 개발 및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조사 및 DB 구축 - 정책과제 연구 및 정보제공 서비스 -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환류 - 무크지 발간 - 재단 출판물(총서·연감) 발간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 경기문화협력 네트워크 - 해외 네트워크 협력 사업
	문화예술 활동지원	-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 지원 - 우수작품 창작, 발표 활동 지원
	문화예술 역량강화	-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 문화예술 매개자 육성
	문화예술 공공가치 확산	-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 문화예술향유기획 확대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통합 홍보마케팅 및 운영활성화	- 통합 문화상품 개발 - 통합 홈페이지 운영 - 경기문화나루 발간 - 통합문화예술 홍보 - 고객관리
	아트센터 운영 및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 아트센터 운영 - 경영정보화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계기성 사업	- 6.25 60주년 회고사업 - 문화시설 운영 - 언론연계 문화예술기획사업 - 문화예술 활성화 기획발굴지원사업
문화시설 통합운영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운영	-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문화재 보존 - 경기학 조사연구사업 - 전통문화 보존전승 활용사업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경기도박물관 운영	- 문화유산 발굴과 연구 - 박물관 전시 운영 -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도민의 문화향유기획 확대 프로그램 - 박물관 학술 교류 -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 박물관 홍보마케팅 - 편의시설 운영
	경기도 미술관 운영	- 10년 현대미술 기획전 - 소장품 전시 - 커뮤니티 프로젝트 - 소장품 수집 및 관리 - 자료실 운영 -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경기창작센터 운영	- 레지던스 스튜디오 프로그램 - 국제교류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 - 작품창고 프로그램 - 홍보마케팅 -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2차)
	경기도자박물관운영	- 박물관 전시·교육 - 문화재 학술조사 및 도자 학술연구 - 소장품 및 자료관리 - 분원백자자료관·조각공원 관리 - 박물관 기반시설 확충

	백남준아트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전시 - 작품구입 - 유물보존 및 아카이브 - 대중교육프로그램 - 백남준학 및 국제공동연구 - 홍보마케팅 - 편의시설 운영 - 백남준 국제예술상
	실학박물관 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와 문화교육 - 실학 학술연구 - 소장품 수집 및 관리 - 홍보마케팅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 문화재 유지관리 - 세계유산등재 - 고품격 역사문화마을 조성 -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 역사체험 교육사업
	어린이박물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건립 추진 - 박물관 개관준비 사업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건립 추진 - 박물관 개관준비 사업
	경기창조학교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캠퍼스 통합 운영 - 창조학교 오프라인 사업 - 경기창조학교 종합홍보

고양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선도 :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우수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문화예술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창조
- 예술의 숨결이 가득한 고양시 : 지역 예술가 발굴 지원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축제, 지역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고양시 곳곳에 예술의 숨결과 창조적 분위기 조성
- 시민의 가장 가까운 예술친구 : 시민들이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를 스스로 찾아가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조직도



□ 주요업무

- 지원사업분야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회단체보조금
 - 무대공연
 - 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 지역 협력형 사업
- 일반사업분야
 -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 문화예술지표조사사업
 - 기관지[문화광주] 발간
 - 월간 [문화예술행사안내] 발행
 - 공연전시나눔사업
 - 대인시장 예술인공방조성사업
 - 아시아문화 예술특화지구 활성화사업
- 문화바우처

구로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운영
 - 대중공연,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기획사업 및 예술작품 전시사업을 수행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 추구
 -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 성별, 문화성향에 따른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기획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대관사업을 통한 공연장 운영 활성화
 -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추진
 - 구로문화회관 연계운영
- 지역내 문화관련 인프라 조성사업
 - 구와 협력하여 구민 문화욕구 수용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
 -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을 위한 문화기반 환경 구축
- 문화예술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한 다양한 계층에 문화예술 혜택 제공 및 문화적 격차 해소
 -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아트 사업
 - 저소득층 세대 문화 혜택증진 사업 추진
 - 서울마스터코랄 운영

김해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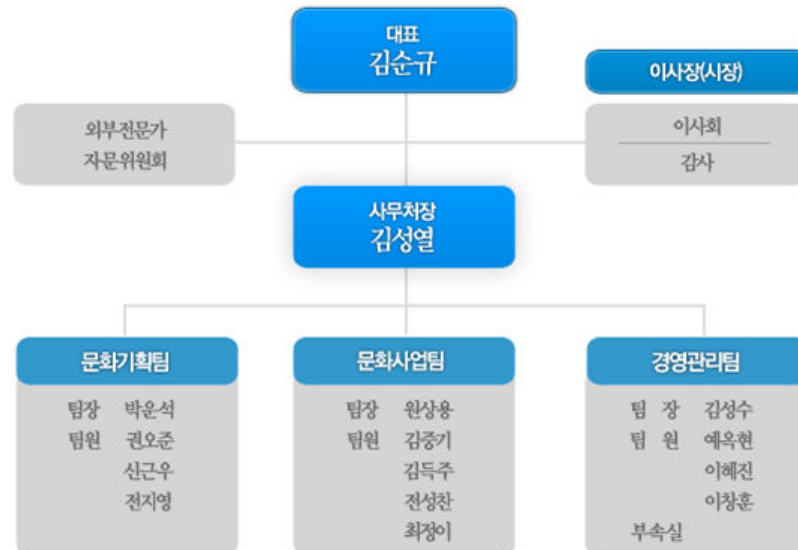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리 및 운영
- 김해시민의중 관리 및 운영
- 문화, 관광 전략사업 개발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지방향토사 연구지원
- 기타 문화시설 등 김해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대구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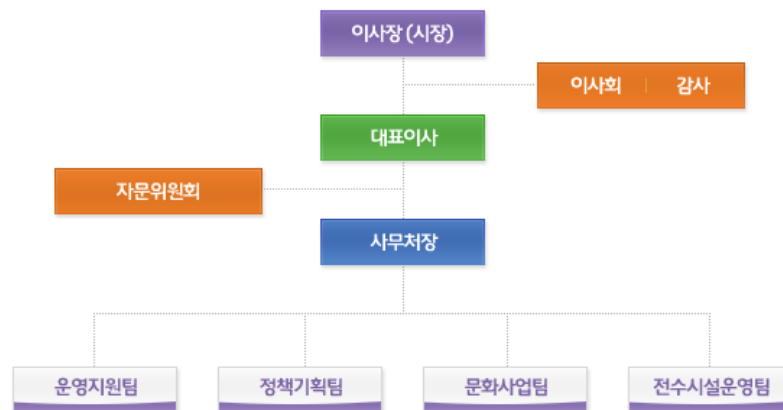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지원사업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시민예술진흥사업
 - 학술진흥사업
 - 공연활동지원사업
 - 기초예술 진흥사업
 - 기획공연, 전시사업
 - 전문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문화도시운동
 - 문화메세나 : '10기업 1문화도시운동' 10개 기업이 1문화도시 프로젝트 지원
 - 문화브랜드10 소개
 - 왓츠로 행복한 도시, 옛 골목은 살아있다, 창작패션의 도시
 - 서정시 읽는 도시, 청년합창의 도시, 영상예술의 도시, 인디밴드의 도시, 소극장의 도시, 아시아미술의 도시, 야외뮤지컬의 도시(사업계획중)

대전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공연단체 집중지원사업
 -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
 - 생활속 예술활동 지원사업
 - 신진예술단체 지원사업
 -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 문화예술 조사연구 지원사업
 -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 국악단체창작활동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레지던스프로그램
 - 연극전용소극장지원
 - 등산로주변문화활동지원
 - 원도심문화예술활동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업
 -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기획인력육성
 - 지역문화예술학교 운영
 - 문화예술콜로키움
 - 문예아카데미
- 전수시설운영사업

마포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언제나 찾고싶은 즐거운 문화마당
 - 재개관 페스티벌
 - 느낌공유 전시프로그램
 - 문화사랑 나눔행사
-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감동의 문화공연
 - 시즌, 월간 기획공연
 - 찾아가는 음악회
 - 함께하는 감동 야외 공연
- 여유와 열정이 넘치는 활기찬 문화, 체육공간
 - 즐거운 참여 문화프로그램
 - 건강한 삶 체육프로그램
 - 유아 예체능프로그램

부산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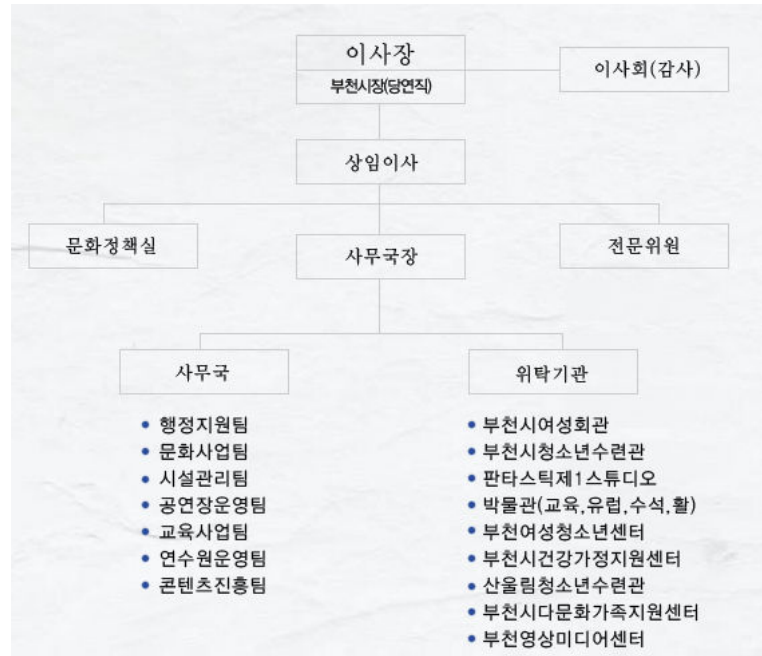


□ 주요업무

- 문화창작활동지원을 통한 기초예술진흥
 -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
 - 공연예술 단체집중 육성사업
 - 지역문화 예술기획 지원사업
 - 메세나 활성화 지원
 - 문예축매활동 지원
 -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 지원
-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 거리예술 프로그램 운영
 - 토요상설 전통놀이마당
 -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운영
- 문화예술창작 기반 구축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
 -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
 - 전자아카이브 구축사업
 - 부산문화포럼 운영
 -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기반 구축
 - 문화포럼(문화상수상자회) 사업개최 지원
 - 문화상시상식 행사 지원
 - 부산사랑티켓 운영 지원
 -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 사업

부천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문예진흥
 - 다목적 문화사업
 - 주말문화체험 문화119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기획
 - 공모사업
 - 도서관운영
 - 박물관운영
 - 문화예술 DB구축
- 여성 / 가족
 - 부천시여성회관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청소년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평구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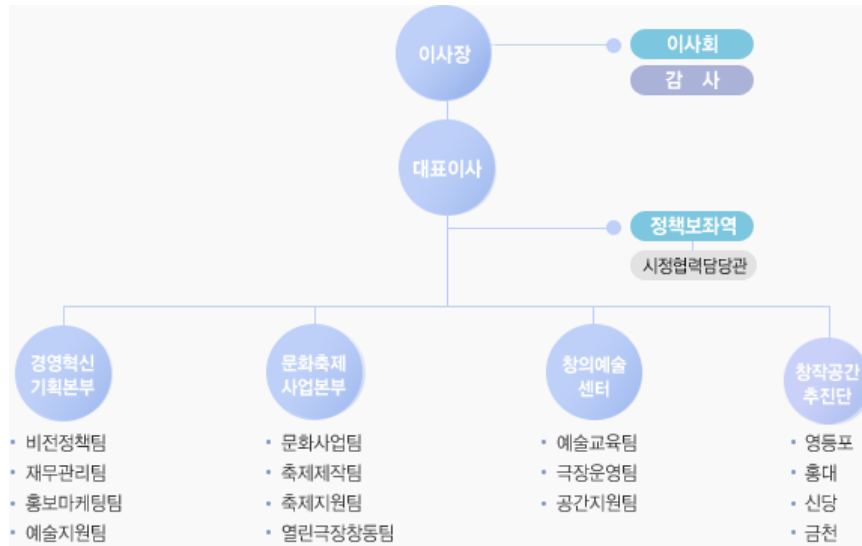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시설운영기능
: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정책생산기능
: 부평구민의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문화마인드를 불어 넣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평을 만드는 기능
- 지역문화지원기능
: 지역 내 문화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연계행사를 통한 지역문화인물과 문화를 개발 지원, 육성하여 부평구만의 독특한 문화 색을 창조

서울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시민생활 속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책 읽는 서울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
 - 사랑의 문화나눔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 시민문예 지원사업
 - 젊은예술가 지원사업/창작활성화 지원사업/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TA) 및 문화매개자 양성교육
 - 어린이 창의 Arts-TREE/청소년 창의 Arts-TREE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서울대표축제 및 공연예술제 운영·지원
 -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서울스프링 실내악 축제/청계천 축제
 - 서울예술축제 지원/서울거리 아티스트
 - 고궁뮤지컬
- 문화예술공간 운영
 - 서울연극센터 운영
 - 남산창작센터 운영
 - 서울열린 극장 창동 운영
 - 대학로 연습실 운영/창작공간 조성사업

성남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성남아트센터, 성남시민회관, 책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운영
 - 공연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 제작 및 기획과 고품격 프로그램 제공
 - 전시 :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전시와 소박하면서도 재미있는 미술을 통해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 개최
- 탄천페스티벌 : 지역민과 함께하는 우수한 공연의 여러 문화예술의 장을 매년 마련하여, 성남시를 문화예술이 꽃피는 향기있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함
- 5대 문화정책사업 : 5대 정책 사업을 수립, 추진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주체의 문화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인적, 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감
 -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구축
 - 문화시민 육성_아카데미 운영

안양문화예술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안양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운영
- 전시장 운영
- 문화예술교육
 - 문화학교 : 전통생활문화체험교실, 예술감상·체험교실, 어린이 창의력 체험교실, 취미계발교실
 - 아침음악회 : 주부층 대상으로 매달 1회 10,000원 진행
 - 해설이 있는 공연
 - 찾아가는 공연
 - 스쿨클래식 : 2개의 지역 오케스트라와 함께 교육적 성격의 음악회 진행

인제군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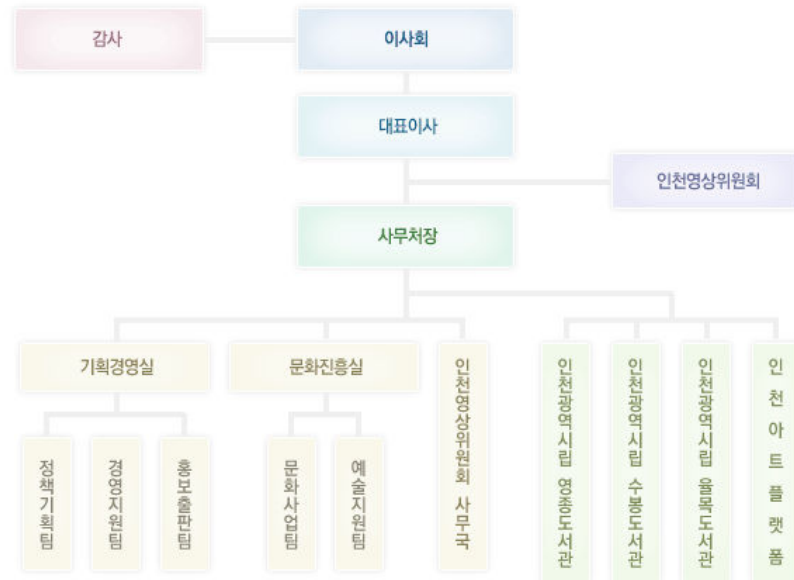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군민을 위한 문화사업
 - 군이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 인제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 빙어축제, 내린천축제 등의 행사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
- 하늘내린센터 운영
 - 문화복지시설로서의 위상 정립
 - 군민을 위한 전시/공연 기획
 - 지역예술단체를 위한 시설대관사업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 체육시설을 활용한 문화사업
- 문화통화/문화나눔
 - 소외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 연간 공연의 객석 중 평균 5% 객석 나눔과 개인의 소중한 능력, 작은 정보를 함께하는 문화 나눔활동

인천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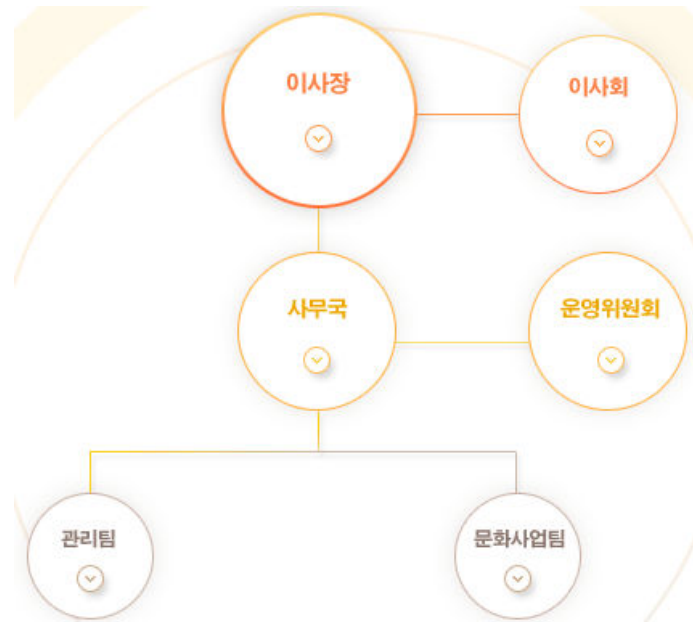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지원사업
 - 일반공모지원사업
 - 지정공모지원사업
 - 기획공모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문화예술기획인력 운영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책으로 여는 문화나눔 지원사업
 - 인천미술은행 운영사업/인천사랑티켓
 - 공공미술프로젝트
- 문화사업
 - 예술프로그램운영/대표인물조명사업/문화예술교육
 - 동아시아지역교류사업
 - 목요토론회/우현상운영/아름다운교문만들기/선착장바꾸기
- 연구출판사업
 - 플랫폼출판사업
 - 인천근대문화유산답사지도제작
 - 총서발간/문화예술DB구축
 - 인천문화예술연감발간/인천문화재단 뉴스레터
- 특별운영사업
 - 인천영상위원회
 - 영종도서관/수봉도서관
 - 인천아트플랫폼

전주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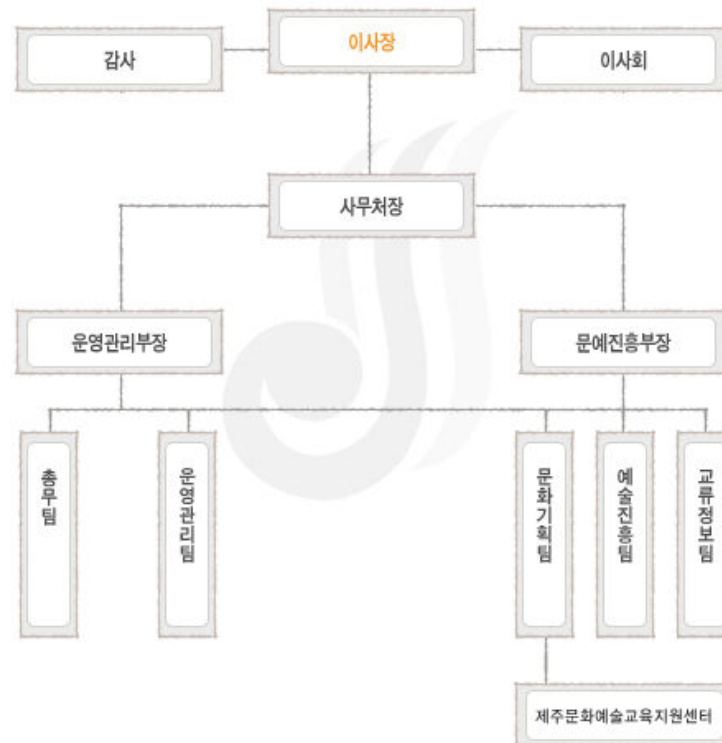


□ 주요사업

- 문화동반자사업
 - 아시아 명인명장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젊은 영화감독 초청연수
- 문화제휴
 - 감동릴레이 무비데이 진행
 - Dream-E 발행
-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 외국인대학생 학점이수제
 - 원어민교사 한국문화체험
 - 주한미군 한국전통체험
 -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이해
 - 재외동포 한국문화체험

제주문화예술재단

□ 조직도



□ 주요사업

- 지역협력형사업
 - 제주문화예술육성사업/제주 사랑티켓/문화바우처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특수교육 종사원 문화예술교육 입문과정 연수
 - 공무원 문화예술교육연수/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
 - 교원 문화예술교육 연수/현장평가위원 및 모니터요원 교육
 -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 ARTReach PROGRAM 공모
 - 지역과 문화예술연계 교육지원사업/지역과 설화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과 생태연계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연계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캠프 지원사업/소규모 문화공간 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지표조사/연구 및 교재개발 사업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홍보
 - 교육진흥원업무_광역센터 이관사업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계획중)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2010년 이관 예정)

중구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구민 공연 및 행사 진행
- 춤무예술아카데미
 - 어린이문화예술교육
 - 뮤지컬아카데미
 - 음악교실
 - 미술교실
 - 주부교실
 - 공연전문가과정
 - 인문학강좌
 - 뷰티플마인드뮤직아카데미

창원문화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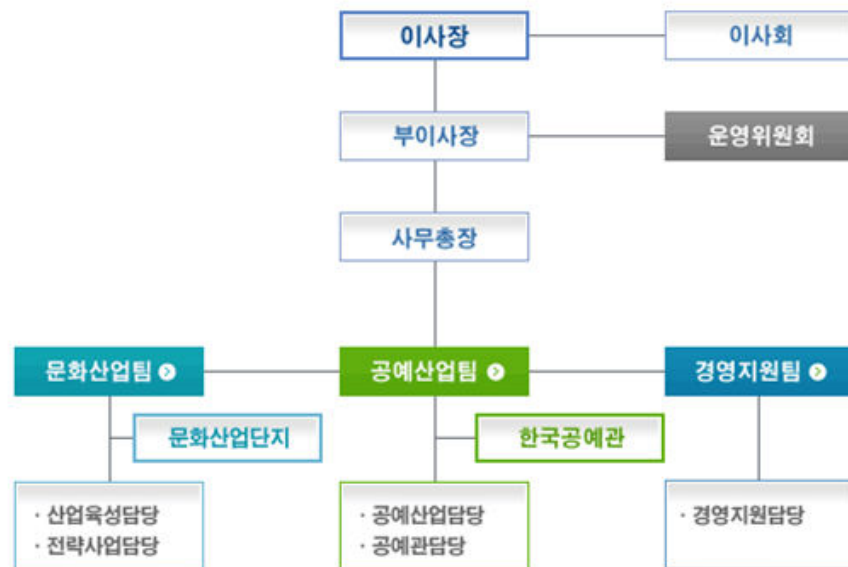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성산아트홀 운영(공연장, 전시장)
-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 창원페스티벌
- 수요문화대학
- 문예지발간 및 출판물 발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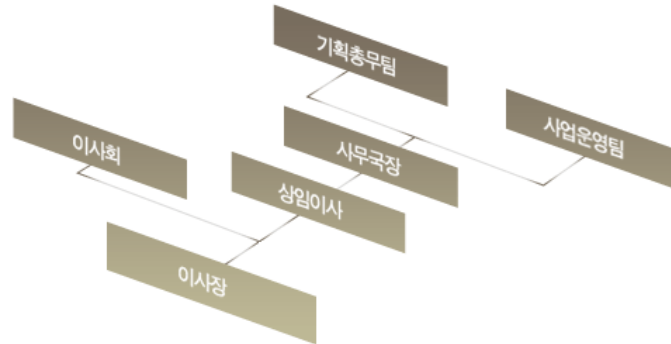


□ 주요업무

- 문화산업팀
 - 문화산업단지관리운영
 - 전문인력양성사업
 - 문화산업육성
- 공예산업팀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청주공예문화상품대전
 - 한국공예관
- 경영지원팀
 - 청주사랑발간

춘천시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지원사업

-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상예술 문화매개활동, 지역문화예술연구조사 및 출판사업, 국제문화교류
 - 시민생활문화 지원사업
 - :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조성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 지역문화창조 지원사업
 - : 춘천 테마콘텐츠 개발사업
- 재단협력 공모사업
 - 춘천시문화재단 창작공간 지원사업
 - : 공간지원, 차작지원, 프로그램지원
 - 지역 유희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 : 공간 디자인 및 프로젝트 지원
- 춘천문화아카이브구축
- 춘천문화아카데미
 - : 지역문화예술가와 함께 춘천의 문화정책과 문화담론을 형성하는 문화소통의 장

화성시문화재단

□ 조직도



□ 주요업무

- 문화복지사업
 - 문화예술정책
 - 문화지표조사
 -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 공연장 학교
 - 아트인큐베이터
 - 문화예술창작사업
 - 문화예술창작육성활성화사업
 - 선정작품홍보
 - 선정사업일정안내
 - 소외계층후원
 - 찾아가는 영화관
 - 찾아가는 공연장
 - 하우스콘서트
 - 문화사업
 - 강지원번호사의 드림콘서트
 - 축제
 - 축제조사 및 연구분석
 - 봄 사랑 가족축제
 - 제부도 장어잡기축제
 - 화성포구 축제
- 화성아트홀
- 청소년수련관
- 여성비전센터
- 유엔아이센터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지역문화재단의 네트워크 씨앗, [지역과문화 포럼]

[지역과문화 포럼]은 지난 2009년 7월, 문화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로 강원도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2박3일간 개최된 '지역문화창조 워크숍'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모임입니다.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모임이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행사의 부제인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 그 주요한 사명을 위해서라도 재단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주최 측인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박승현 책임강사(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의 지원 속에 중구문화재단(이장민 문화사업팀장)과 구로문화재단(김승태), 부천문화재단(김태희) 등이 운영진의 주축이 되어 본격적 네트워킹을 위한 온라인 카페(cafe.naver.com/regionculture.cafe)가 개설되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워크숍에 참여했던 17개 재단 30여명의 재단 관계자들이 창조적인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있는 정기모임을 통해 창조도시와 자발적 예술활동에 관한 토론과 독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정기 모임 및 자체 워크숍, 그리고 각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창조도시*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이 때, 지역 문화의 거점인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더 큰 창조와 열정으로 지역문화의 발판을 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자발적 모임인 [지역과문화 포럼]의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像)은 무엇인가?

발행인_ 이종덕

편집인_ 노재천

기획총괄_ 박승현

기획진행_ 김혜전

발행처_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디자인/인쇄_ 맥스커뮤니케이션

발행일_ 2010. 5

© 성남문화재단

像

2010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